

〈신용보증기금〉

## 信保, 한진해운 보증섰다 血稅 4000억 날려

대위변제 금액 3년간 1조5400억  
일시 자금부족 기업 유동성 지원  
기준 건설사서 他업종으로 확대  
김관영 의원 “금융위 책임 물어야”

신용보증기금이 한진해운에 지급 보증을 섰던 4000억 원이 넘는 빚을 대신 갚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한진해운이 율조 파산함에 따라 빚을 갚아 주고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어, 잘못된 정책적 판단으로 혈세를 날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에 따르면, 신보는 시장 안정 회사채담보부증권(P-CBO)을 발행해 보증을 섰던 기업들의 대출금 가운데 대위변제 금액이 내년 1조5399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시장 안정 P-CBO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7월 신보를 관할하는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 중 하나로, 일시적으로 자금 부족을 겪는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신보의 회사채 보증 대상을 기존 건설사에서 타 업종까지 확대하면서 금융위는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선별하고 사후관리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위의 장담과 달리, 지원받은 기업들의 부실로 신보는 지난해 1322억 원을 대위변제했다. 당해 만기 도래 보증액이었던 1조2616억 원의 10% 수준이다. 올해는 만기 도래한 보증액 2조3427억 원 중 4742억 원, 내년엔 3조1107억 원 중 9335억 원을 대신 갚아야 할 것이라 신보의 자체 분석이다. 대위변제율이 30%까지 치솟는 셈으로, 3년간 총 1조5399억 원의 혈세를 기업 보증 빚을 갚는데 쏟아부어야 한다는 얘기다.

보증 빚은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동부제철 등 3곳으로 인해 생겼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특히 파산한 한진해운에 대한 보증 빚 4306억 원은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없다. 자율협약 중인 현대상선의 4675억 원, 워크아웃 중인 동부제철의 1853억 원처럼, 일단 대신 갚아 준 뒤 나중에 기업이 회생하면 돌려받을 수 있으리라는 일말의 기대 자체가 불가능하다.

김관영 의원은 “금융위는 경영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기업에 지원하겠다고 하 고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1년 전인 2015년 6월에도 차환을 발행해 왔다”며 “40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회수할 방법이 없어진 데에 금융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 文 기다리는데…트럼프, 기상악화로 DMZ 방문 무산

국회서 北核공조·한미동맹 재확인  
한미FTA 긴밀 협의도 요청

국빈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미 동맹 재확인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중국·러시아 등 국제 공조를 요청했다.

▶관련기사 2·3·4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회 연설에 앞서 일정에 없던 비무장지대(DMZ) 방문을 시도했으나 기상악화로 취소했다. DMZ 방문 시도는 전날 가진 한·미 단독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 간 대화에서 아워졌지만 기상악화로 헬기가 착륙할 수 없어 취소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은 안전한 중간 지역에 먼저 착륙해 차량으로 이동, DMZ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기다렸지만 날씨 문제로 취소돼 성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DMZ 방문 시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동맹 결속 강화와 북한 무력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 연설 전인 오전 10시 45분께 국회에 도착해 정세균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등과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10여 분간 사전환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과 굳건한 한미 동맹 태세 재확인, 무역 불공정에 대해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빈 만찬 전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뉴스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24년 만에 우리 국회에서의 연설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국제공조 강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해 얘기했다. 특히 양국 간 자유롭고 균형적인 무역을 증진하고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긴밀한 협의도 국회에 요청했다.

한·미 동맹 강화와 관련해 전날 있었던

를 분명히 밝히면서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 연설을 마치고 바로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현충탑에 헌화하면서 1박2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무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다음 방문국인 중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신동민 기자 lawsdm@

## 해외진출 속도내는 쌍용車

中 합작공장 설립 재검토…전기차와 협업도  
母기업 인도 마힌드라는 美 공장 추진 계획

쌍용자동차가 해외 진출을 본격화한다. 중국발(發)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산시성 합작 공장 설립이 이르면 내년 초 가시화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공동 플랫폼을 추진해온 모기업 마힌드라는 미국 공장 추진 계획을 밝혀 주목된다. ▶관련기사 9면 8일 쌍용차와 외신에 따르면 이 회사는 중국 산시성 시안에 설립할 예정이던 현지 합작 공장 계획을 재추진한다. 2016년 말 본격화한 합작 프로젝트는 투자의향서(LOI)까지 체결했지만, 중국의 사드(고고

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 탓에 1년째 딜로프 상태였다.

쌍용차는 SUV 전문 메이커답게 소형 SUV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를 2019년에 양산한다. 그때까지 중국 현지 합작 공장 설립 외에 현지 전기차 업체와의 아웃소싱(외주) 협력도 검토 중이라는 뜻이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의향서를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초에 공장 설립이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미국 진출 가능성도 커졌다. 쌍

용차의 모기업인 인도 마힌드라는 최근 디트로이트 근교에 40만 제곱피트 규모의 조립 공장 건립 의사를 밝혔다. 이날 디트로이트 뉴스를 포함한 현지 언론은 “쌍용차와 마힌드라가 공동으로 개발한 새 모델이 이 공장에서 생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마힌드라 역시 현지시간으로 20일 북미 공장 설립에 대한 구체적 입장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쌍용차는 2015년 콘셉트카 XAV 출시 이후 “모노코크 타입의 소형 SUV를 앞세워

미국에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동안 미국 진출을 위해 연비와 안전 기준 등을 맞춰왔고 전기 방면에 대해서도 검토해왔다. 모기업인 마힌드라와 시너지를 위해 공동 플랫폼과 전기차 개발을 추진해온 만큼 이번 공장 설립 계획이 쌍용차에 긍정적 신호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송선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쌍용차의 해외 진출은 중장기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미국은 연비와 안전 기준을 충족 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은 만큼 시장 진입 방법 등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아직 준비 단계로 가시화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기아 ‘1세대 스포티지’  
포드 ‘소형 SUV’ 프로젝트였다

10

인도네시아 가는 신동빈  
동남아 시장점검 나선다

15

‘평창’ 공식 후원 KEB하나銀  
세계의 광고판 홍보효과 톡톡

모바일로 보는 이투데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앱



## 스타트업 육성 앞장선다더니 규제로 발목잡은 서울시

‘출퇴근 시간선택제’ 법 저촉 이유  
카풀 스타트업 ‘풀러스’ 고발 조치

지난해 국내 스타트업 10곳  
을 뉴욕 투자자들에 소개하는  
등 스타트업 지원에 앞장  
서겠다며 대대적 홍보에 나섰던  
서울시가 오히려 스타트업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8일 서울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택시불류과 택시정책팀은 7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카풀(승차공유) 스타트업인 ‘풀러스’를 고발 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풀러스가 이날부터 시범 서비스한 ‘출퇴근 시간선택제’ 서비스가 법에 저촉된다는 이유에서다. 출퇴근 시간선택제에 따라 풀러스의 서비스 제공자(운전자)는 시간대와 관계없이 각각 4시간씩 출퇴근 시간을 설정해 하루 8시간씩 일주일에 5일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서울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운수법) 81조에 근거해 이를 불법으로 판단했다. 이 조항에는 카풀은 퇴근 시간에 차량이 혼잡할 때 혼잡 완화를 목적으로 도입됐다고 명시돼 있다. 풀러스 서비스 제공자가 출퇴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어 혼잡하지 않은 낮 시간대에 카풀 무료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면 당초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하지만 풀러스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운수법 81조에는 “출퇴근 때 승용차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유료 운송이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이 있는데 정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 풀러스가 낮 시간대 서비스를 도입한 것은 출퇴근유연근무제가 정착되면서 근무 형태가 다양해졌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근무 형태에 맞춰 출퇴근 시간도 단순히 아침과 저녁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풀러스 관계자는 “7월 풀러스는 출퇴근 시간선택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우려를 접하고 서비스 출시를 4개월 이상 연기하며 관련 전문가들과 합법적 범위 내에서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해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며 “이번 고발 조치는 4차 산업혁명 및 ICT 산업 육성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 자율업이나 관에서 따로 제재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여 경찰 층에 조사를 요청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김범근 기자 nova@·김정웅 기자 cogito@

### 두산重 대규모 구조조정

임원 감축하고 사업 통폐합  
엔진 매각은 日 기업과 협상

두산중공업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에 따른 시장 위축을 대비해 임원 감축과 사업 통폐합 등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8일 두산중공업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회사는 임원 120여 명 중 30~50%를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의 임원 중 상당수는 화력발전 사업 분야를 맡고 있다. 정부가 출범 첫해인 올해부터 화력발전 죽소에 나선 만큼 해당 사업의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조직 통폐합도 추진된다. 두산중공업은 원자력BG(비즈니스그룹)·EPC BG·보일러BG·터빈발전기BG·서비스BG·워터BG·주단BG 등 7개 사업부문과 관리부문·재무관리부문·기술연구원 등 3개 사업 외 부서로 구성돼 있다. 이 중 화력발전 관련 분야는 보일러BG와 서비스BG가 맡고 있다. 보일러BG는 공사를 진행하며 서비스BG는 사후 관리를 하는 부서다. 이 두 부문을 통합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원자력BG의 경우 단계적으로 규모를 축소할 예정이다. 내년 9월에는 신고리 4호기가 완공될 예정이며, 신고리 5·6호기의 준공 예상 시기는 2022년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원자력BG 부문 인력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정부의 국책과제인 가스발전 사업부문은 강화할 예정이다. 두산중공업은 2022년을 목표로 가스터빈을 개발 중이다. 정부가 석탄발전소를 가스로 전환하면 두산중공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전망이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산중공업이 지분 42.7%를 보유한 두산엔진의 매각은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두산그룹은 두산엔진 매각을 위해 일본 측 기업과 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내 외 사모펀드(PEF) 운용사 등 다양한 곳에서도 두산엔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두산엔진 매각은 내년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정다운 기자 gamja@·정수천 기자 int1000@



알파벳 웨이모의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량이 미국 애리조나 주 피닉스의 공공도로 위를 주행하고 있다. 출처 웨이모 트위터

## 성큼 다가온 자율車 시대 구글, 운전자 없이 달렸다

알파벳 웨이모, 지난달부터 공공도로 주행 테스트  
“수개월 내 차량공유 앱 통해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진정한 자율주행차량의 시대가 왔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자율주행차량 사업부인 웨이모가 운전석에 사람이 앉지 않은 운전자를 처음으로 공공도로에서 선보인 것이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웨이모가 애리조나 주 피닉스에서 운전석에 사람이 앉지 않은 운전자를 처음으로 공공도로에서 달리게 했다고 보도했다.

웨이모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달 19일부터 피닉스 메트로 지역에서 로봇 택시를 시험해 왔다”며 “앞으로 수개월 내 사람들은 차량공유 앱을 통해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웨이모는 크라이슬러의 퍼시피카 미니밴에 자율주행 장비를 장착해 실제 도로 위를 달리게 했다. 웨이모 직원이 차량에 탑승하기는 했지만 운전석이 아니라 뒷좌석에 앉았다. 직원은 정차 버튼만 누를 수 있다. 웨이모는 수개월 안에 승객들만 차에 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웨이모는 구글의 프로젝트로 8년 전 시작됐으며 자율주행차 개발 경쟁을 촉발했다. 이번 시험의 의미는 공공도로를 주행하는 자율주행차량 중 최초로 사람 운전자 없이 달리는 기술을 구현했다는 것이다.

존 크래프트 웨이모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열린 한 기술 컨퍼런스 연설에서 “수개월 안에 우리의 ‘얼리 라이더(Early Rider)’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이 운전석에 앉아 차를 타게 될 것”이라며 “사용자들은 우버와 비슷한 형태의 스마트폰 앱으로 차량을 호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량 공유와 자율주행은 100년 이상 전통을 자랑하는 자동차 산업을 뒤흔들 파괴적 혁신으로 꼽히고 있다. 보스턴 컨설팅그룹(BCG)은 2030년에 미국에서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중 4분의 1은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는 공유 차량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면 자율주행차량이 널리 채택되려면 아직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다. 자율주행 관련 규정이 아직 정비되지 않은 데다 사람들이 안심하고 컴퓨터에 차량 통제권을 전부 맡길지도 의문이다.

배준호 기자 baejh94@

# 재회하는 ‘G2 強對強’…爭點은 ‘무역불균형’

## 트럼프 美 대통령, 오늘 중국으로

對北 문제 최우선 예상 깨고 韓·日서 통상 문제에 강한 집념  
앞서 “中과 재협상…4조 달러 되찾겠다” 對中 무역적자 해결 의지  
취임 11개월차 트럼프·9년차 시진핑 ‘두 스트롱맨’ 간 氣싸움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한국 일정을 마치고 바로 중국을 방문한다. 4월과 7월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인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통상 문제를 놓고 첨예한 기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경기 평택에 있는 주한 미국 기지 캠프 험프리스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대표단과 무역 회담이 잘 돼 미국 일자리 창출과 같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며 “무역 재협상을 해 4조 달러(약 4447조 원)를 되찾을 것”이라고 대중 무역 적자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시 주석은 지난달 말 제19기 중앙위원회 1차 전제회의(1971 1중전회)에서 1인 차례 제제를 굳건히 했다. ‘스트롱맨’ 트럼프가 방문하기 전 지배체제를 인정적으로 마련한 셈이다. 임기 1년도 안 된 트럼프 대통령과 9년째 중국 공산당 최고위직을 지키는 시 주석 간 만남에서 G2 지도자들의 기싸움이 기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방문한 일본에서도 통상 문제를 대놓고 지적하며 실리를 쟁겼다.

4월 미국 플로리다 주 마라라고에서 양정

다. 극진한 대접을 받았음에도 통상 문제에서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트럼프는 일본과 한국에서 공동으로 통상 문제 해결에 강한 집념을 나타낸 것이다.

중국에서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2일간 아시아 순방의 성과를 과시하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이다. 순방에 나서기 전 트럼프는 트위터로 예고편에 해당하는 경고를 날렸다. 그는 “중국과의 무역 적자는 지나치게 커서 숫자를 말하기도 어렵다”며 “무역 재협상을 해 4조 달러(약 4447조 원)를 되찾을 것”이라고 대중 무역 적자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시 주석은 지난달 말 제19기 중앙위원회 1차 전제회의(1971 1중전회)에서 1인 차례 제제를 굳건히 했다. ‘스트롱맨’ 트럼프가 방문하기 전 지배체제를 인정적으로 마련한 셈이다. 임기 1년도 안 된 트럼프 대통령과 9년째 중국 공산당 최고위직을 지키는 시 주석 간 만남에서 G2 지도자들의 기싸움이 기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방문한 일본에서도 통상 문제를 대놓고 지적하며 실리를 쟁겼다.

4월 미국 플로리다 주 마라라고에서 양정



4월 6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주 팜비치에 있는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악수를 하고 있다. 두 정상은 8일 중국 베이징에서 재회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이징에서 2박 3일 머문다. 미·중 간 화두인 무역 불균형 문제, 대북 문제 등을 놓고 두 ‘스트롱맨’이 어떤 기싸움을 벌일지 주목된다.

결실이 맺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관측했다. 컨설팅업체 APCO월드와이드의 제임스 백 그리더 회장은 “중국은 다양한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호주뉴질랜드은행(ANZ)은 최근 투자 노트에서 “중국의 지적재산권 문제나 중국으로 미국의 점단 기술 제품을 제한하는 문제 등 복잡한 사안은 이번 만남에서 풀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 미국산 자동차, 왜 일본서 안 먹힐까?

좌핸들·육중한 차체…日도로에 부적합해 ‘외면’  
벤츠 등 獨명차는 틈새시장 공략해 매출 증가

아시아를 순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 방문 중 자동차 산업을 근거로 들어 일본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6일(현지시간) “미국에서는 일본 차가 수백만 대 팔리지만 일본 내에서 미국 차 판매는 저조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트럼프의 이러한 주장은 자동차 산업을 공부하지 않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포브스는 지적했다.

포브스에 따르면 작년에 트리를 포함해 일본에서 팔린 미국 차는 1만900대 이하였다. 이는 일본 전체에서 팔린 자동차의 0.3%에 불과하다. 이처럼 일본이 미국산 차의 무덤이 된 데는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일본인이 타기에 미국 자동차가 말 그대로 ‘불편’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운전

석이 오른쪽에 있다. 왼쪽에 운전석이 있는 미국 차들은 일본 시장을 위해 이를 수고롭게 재설계하지 않는다고 포브스는 전했다.

두 번째 문제는 크기다. 당시 미국 차는 일본의 좁은 도로에서 주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일본이 미국 차에 벽장을 걸고 있다는 뉘앙스로 말했지만, 사실은 그 반대로 미국 기업이 일본 시장에 진출했다고 고전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기업에 일본은 일종의 트라우마다. 1996년 일본에 상륙한 피아트크라이슬러(FCA)가 대표적이다. 당시 미국과 일본 언론은 크라이슬러가 일본의 자동차 업체들을 죽일 것이라며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일본인들이 대형차를 기피하면서 오히려 크라이슬러가 고전했다. 일본에서 연간 2만 대를 판매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첫해 판매량은 1만 1466대에 그쳤다. 그러자 GM은 2000년을 끝으로 도요타와의 합작 투자를 종단했다.

전통적으로 외제차를 좋아하는 야쿠자

료 효율성도 우수해지고 일부 소형 모델들은 일본의 도로망에 적합하다. 문제는 미국 차에 대한 선입견이 생긴 뒤로 일본인들이 미국 차를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일본과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합작 투자를 해 소형차를 생산하려 노력했지만 결과는 매번 비침했다는 사실이다. 1996년 제너럴모터스(GM)는 도요타와 합작해 ‘카발리에’를 생산했다. 일본에서 연간 2만 대를 판매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첫해 판매량은 1만 1466대에 그쳤다. 그러자 GM은 2000년을 끝으로 도요타와의 합작 투자를 종단했다.

전통적으로 외제차를 좋아하는 야쿠자 수가 감소한 것도 미국산 차 판매 부진의 이유로 꼽힌다. 3월께 야쿠자 조직원 수는 사상 처음으로 2만 명 이하로 줄었다. 일본 경찰청은 일본 전국 폭력단 구성원 수가 2만

명 이하로 줄어든 건 집계를 시작한 1958년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다.

야쿠자는 한때 채권 회수 대행 등으로 금융, 부동산 등의 분야에서 수조 단위의 돈을 움직였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서 암흑의 세계에서 손을 터는 야쿠자들이 속출했다. 현재 일본 내 야쿠자 수는 약 4만 명으로 올해 초보다 늘었으나 큰손 뇌물을 하던 예전의 명성은 잊었다.

다만 모든 외산 차가 일본에서 부진한 건 아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와 같은 독일 명차들은 틈새시장을 공략해 야쿠자들의 지갑을 기꺼이 열게 하고 있다. 벤츠처럼 미국 자동차 기업들도 야쿠자들의 관심을 사고자 노력한다면 일본에서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포브스는 전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 천연가스는 어둠을 이깁니다.

자가열병합발전으로 이깁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 천연가스가 함께 합니다.

# “한미FTA, 美에 좋은 협상 아냐”… ‘불씨’ 남겨놓은 트럼프

핵잠수함 등 최첨단 전략자산 도입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완전해제 등  
안보 강화·동맹 재확인 ‘성공적 평가’  
FTA 견해차…개정협상 난항 예고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국빈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을 ‘위대한 동맹’으로 한 단계 발전시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해 안보 불안을 잡아주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관련해서는 서로 평행선을 보이며 무역 문제 불씨를 남겨 뒀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코리아 패싱’(한반도 문제 해결에 한국이 제외되는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 트럼프 방한 이모저모

### 文대통령, 평택 미군기지 직접 마중 ‘깜짝예우’ 위안부 피해 할머니 포옹·독도새우… 日 발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찾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평택 미군기지에서 깜짝 환대한 이후 청와대는 본격적으로 공식 환영식을 개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영식에 만족하며 계속해서 문 대통령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7일 트럼프 대통령의 병한 첫날의 이모저모를 들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문재인 대통령 모두 ‘파란색 넥타이’= 이날 한국땅을 밟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파란색 넥타이를 착용한 정장 차림이었다. 평소 빨간색 넥타이를 즐겨 매던 트럼프 대통령이 파란색을 선택하면서 문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파란색 바탕에 트럼프 대통령의 당적인 공화당을 상징하는 코끼리 그림이 새겨진 넥타이를 매 트럼프 대통령을 예우했다.

◇문 대통령 평택 ‘깜짝 방문’… 이례적 의전 =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일정 장소인 ‘캠프 험프리스’를 깜짝 방문에 파격적인 의전을 보였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방한한 미국 대통령을 청와대가 아닌 미군기지에서 맞이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애초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진행되는 공식 환영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계획이었다. ‘서프라이즈’를 좋아한다고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깜짝 예우에 매우 만족했다는 후문이다.

◇美 대통령 환영식에 300명 의장대, 어린이 환영단… “베리베리 나이스” = 트럼프 대통령의 환영식에는 300여 명의 장병으로 구성된 의장대와 군악대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예식을 꾸몄다. 이

“대한민국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여서 한국을 우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안보 불안감을 불식시켰다.

문 대통령도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와 인근 지역으로의 순환배치를 확대·강화하기로 하고 한국의 자체 방위력 증강을 위한 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기로 합의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의 최첨단 군사정찰자산 획득과 개발을 위한 협의도 즉시 개시하기로 했다”며 “오늘도 한·미 동맹의 굳건함에 대해 하심한 대화를 나눴으며 북핵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 동맹과 북핵 평화적 해결에 공감대를 나

타내 문 대통령의 한반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공감대를 표시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수십억 달러를 투입해 핵잠수함·최첨단 정찰기 등 최첨단 전략자산 구매와 방위비 분담이라는 보따리를 내놓았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만족감을 나타내며 우리나라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기로 합의하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는 양국 정상 간 격차를 분명히 나타내며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양 정상은 단독정상회담이나 확대정상회담에서 한·미 FTA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사실상 한·미 FTA에 대해 입장 표명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양국 경제관계를 제고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 협정은 성공적이지 못하고 미국에는 그렇게 좋은 협상 아니다”고 밝혀 향후 한·미 FTA 개정 협상 타결에 난항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는 한·미동맹의 한족이 경제협력이라는 것을 재확인했으며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한·미 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는 것에도 인식을 같이했다”며 “자유롭고 공정하며 균형적인 무역의 혜택을 함께 누리고자 관련 당국으로 하여금 한·미 FTA 관련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부연해 기존 입장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이었다.

신동민 기자 lawsdm@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향해 염지를 치켜들고 있다.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빈 만찬에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포옹하며 인사하고 있다.

후 트럼프 대통령을 태운 전용 차는 전통 의장대의 호위 속에 청와대 본관으로 들어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자 어린이 환영단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반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소를 머금은 채 아이들에게 다가가 “베리 베리 나이스”라며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만찬메뉴 ‘독도새우’… ‘위안부 할머니’와 포옹하기도 =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빈만찬에는 만찬 메뉴에 ‘독도 새우’를 넣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도 참석하는 등 역사문제와 관련한 접근을 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용수(90)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포옹도 했다. 이에 일본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2015년 12월에 양국 합의를 바탕으로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으로 비가역적인 해결을 한 것으로 양국이 확인했다”며 “착실하게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하늬 기자 honey@

## 역대 美대통령 국회연설

### 1960년 아이젠하워 첫 연설… 클린턴까지 총 6번

#### 정치적 이념→北核·通商문제… 시대 따라 연설 주제도 변화

국빈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8일 한국 국회 연설로 역대 미국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1994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이며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7번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국회 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과 유익하고 호혜적이며 강력한 한·미 동맹을 강조했다. 역대 미국 대통령의 국회 연설 내용을 보면 당시 시대상이나 방문 목적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핵 위협과 자국 이익 우선주의에 의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거론했다.

국회기록보존소에 따르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60년 6월 20일 미국 대통령의 첫 한국 국회 연설을 했다.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냉전체제와 6·25 직후 국가 재건의 시대상을 반영해 국회에서 공산주의의 배척과 자유민주주의 중요성,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대한 방위공약의 성실했을 이행, 전후 재건을 위한 한국 정부에 대한 지원 등을 주제로 연설했다.

두 번째는 린든 존슨 대통령이 1966년 11월 2일

국회에서 6·25전쟁이 북침에 의한 발생한 것이라며 미군 개입 필요성을 강조했고, 공산주의의 이념 확산 우려를 연설했다. 당시 베트남 전쟁과 공산주의 위협이 확산하는 시기라 이 같은 이념적 메시지를 던졌다.

이후 80년대로 넘어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1983년 11월 12일 국회를 방문해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중요성, 국제무역에서 거론되는 보호주의 압력 배척을 강조했다. 이어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1989년 2월 27일과 1992년 1월 6일 두 차례 국회에서 연설했다. 첫 번째 연설에서는 동반자로서의 한·미 동맹과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 유지를 밝혔다. 두 번째 연설에서는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허용 촉구와 주한미군 감축계획 보류, 군사적 행동 가능성 시사, 국제무역기구 통제 아래서의 자유무역주의 강화 등을 얘기했다.

마지막 국회 연설자는 클린턴 대통령으로서 1993년 7월 10일 국회에서 신태평양공동체 구축, 대량파괴무기 확산금지, 새 대화체제 구축, 북한 IAEA 사찰 촉구와 북핵 위협에 대한 중국의 역할론을 주장했다. 신동민 기자 lawsdm@

ShinYoung

**테크노폴리스의 미래가치에  
지웰의 자부심을 더하다**

**청주 테크노폴리스 지웰**



<http://tp.g-well.co.kr>

**YBM NET**

온라인 교육서비스 3년간 무상제공  
전세대 계약 즉시 혜택제공

10년 연속 (2008~2017)/한국산업의브랜드파워  
온라인외국어학원부문1위

①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② 공동구매 최대 200만원 혜택  
③ 전국 청약 가능

**11월 10일 OPEN (예정)**

**G:well**

**문의 043) 233-2600**

\* 본 충분률의 CG 이미지. 내용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부설계내용은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충북선  
모델하우스  
내곡·조종학교  
SK하이닉스  
LG화학  
월병·정관  
LG로  
제2순환도로  
청주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LG로  
모델하우스 주소: 청주시 흥덕구 익복동 24번지(LG로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예정된 8일 오전 국회 의사당 앞에서 경찰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24년 만에 美 대통령 국회 연설…여의도 표정

## 與野 정쟁도 잠시 멈춤 한국당 상복 시위 풀어

국회의사당 출입 엄격히 통제  
최고수준 경호·의전으로 맞아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앞두고 국회는 '손님맞이'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국회 주변부터 운집한 경찰 인력과 경찰 버스들은 긴장감을 자아냈다. 우리나라에서 24년 만에 이뤄지는 미국 대통령의 국회 연설인 만큼 국회는 '최고 수준의 경호와 의전으로 그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

최고 수준의 경호를 위해 국회 인근에 8000여 명의 경찰 인력이 동원됐다. 대형 경찰버스가 국회를 에워쌌고, 국회대로에는 100m 넘는 높이의 펜스가 촘촘히 설치됐다. 경찰버스들은 2·3대씩 국회 주변을 순찰하기도 했다.

국회 출입문과 의사당은 출입이 제한됐다. 평소 전면 개방되던 국회 출입문은 정문인 1, 2, 3번을 제외하고 모두 닫혔다. 운전자의 신분을 일일이 확인하고 입장을 허가하는 탓에 출입문 앞은 이를 기다리는 차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택시 등 외부 차량은 출입이 금지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할 국회의사당의 출입 역시 엄격히 통제됐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의사당 1층 전면부 통행로 등이 닫히고 후면 안내실과 2층 정현관 입구로만 출입이 가능하다"고 안

조보경 기자 jojo@

# "소득주도 成長의 근간" vs "졸속 추진 퍼주기福祉"

## 예산안 살비싸움

정부·여당 "한국당 대선공약집에도 있는 것…사회공감대 형성" 야 "예비타당성 조사 안해…지속 가능성 위해 예산추계 필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할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액 인상률을 높여 여야가 갑론을 빚고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와 부모 소득확대 등을 위해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정책으로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한다. 기초연금액은 정부 핵심 복지 정책 중 하나로 현재 월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아동수당 시행에는 내년도 6개월분 예산 1조 1000억 원이, 기초연금액 인상에는 기존

8조 1000억 원 규모에서 9조 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7000억 원(21%)이 확대된다.

정부와 여당은 아동수당 신설과 기초연금액 인상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봉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7일 "기초연금 5만 원 인상과 공공 부문 일자리 증원은 자유한국당 대선공약집에도 모두 있는데, (한국당이) 이 예산에 모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대선 끝나고 공약집을 가져다 버린 것인가"며 해당 정책을 비

판하는 야당을 견제했다.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6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에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인상은 어느 당이나 다 공통으로 공약한 사안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을 '퍼주기'로 규정하고 전방위로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사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아동수당과 같이 준비 안 된 공약을 밀어붙이면 혈세가 낭비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당은 정부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아동수당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미시행해 법적 근거가 없고, 기초연금은 정책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지속가능성을 위해 예산 재추계가 필요하

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정책처는 아동수당 도입과 관련해 "외국은 기준에 따라 자급액을 차등화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외국 사례를 자세히 검토해 소득주도 성장과 저출산 문제 개선에 효과적인 지원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초연금액 인상에는 "국민연금과 독립적인 제도로 추진될 때는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 지원의 효과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 복지정책 모두 지방자치 단체의 지방비 확보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지자체와의 협의도 선행돼야 할 전망이다. 예산처는 내년도 아동수당에는 4294억 원의 지방비가 들지만 2019년에는 8000억 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정용욱 기자 dragon@

##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 내일 본회의 처리

다른 세금도 줄줄이…지방세 등 세금 3000원 인상 '초읽기'

아이코스, 글로 등 월별형 전자담배에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개별소비세를 매기는 법안이 곧 국회를 통과한다.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 이후 담배소비세 등 다른 세금을 올리는 법안도 올해 내에 줄줄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커, 전자담배값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전자담배 개소세를 한 갑(20개비)당 126원에서 529원으로 올리는 개소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였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정부와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안인 만큼, 통과 가능성은 크게 점쳐진다.

개소세 인상의 다음 수순은 지방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이다. 8일 현재 국회엔 전자담배에 대해 지방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일반담배와 똑같이 매기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이 개소세법 개정안과 세트로 내놓은 법안들로 각각 행정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다만 개소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세 등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결정되리라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기재위에선 개소세를 일반담배와 똑같도록 100%로 인상하려 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서민증세'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90%

절충안이 만들었다. 이 절충안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돼 다른 법안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다.

김 의원 측은 8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전자담배 개소세를 90%로 정할 때에 기재부가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다른 세금들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부과하기로 입장 을 정리한 것으로 안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의견 조율이 있었을 것이고 우리 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소세와 지방세 등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부담금은 현재 1739원에서 2990원 정도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개소세 인상 당시 전자담배 가격 인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각종 세금이 3000원 가까이 오르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리란 전망이 우세하다. 아이코스 생산업체인 필립모리스 한 관계자는 "개소세 몇백 원 오르는 건 감당할 수 있지만, 몇천 원의 세금이 오르면 얘기가 달라진다"고 했다.

그러나 곧 출시되는 KT&G 전자담배 '릴'의 가격이 현재 아이코스, 글로 가격인 4300원으로 책정된 데다, 담배가격 인상 시 각종 정부 규제가 가해질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아이코스 생산자인 필립모리스 등이 쉽사리 가격을 올리길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김미영 기자 bomnal@

## 자유한국당·바른정당 3선 모임



자유한국당 김성태, 홍문표, 이철우(오른쪽부터) 의원과 바른정당 황영철(왼쪽) 의원 등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바른정당 3선 의원모임 보수대통합추진위원회'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 유남석 현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념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유남석 현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여야는 유 후보자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점을 들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측은 유 후보자의 이념과 출신을 문제 삼아 '사법부 정치화'를 주장했다. 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꼬집으며 이념 논란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 유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답변서에서 좌편향 논란을 부인했다. 그는 "우리법연구회 창

립 멤버라는 이유로 좌편향 인사라고 규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우리법연구회가 정치적 결사체라기보다는 법관들이 참여하는 학술단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동성애·동성혼과 관련해 "현행 헌법과 법률 규정은 물론이고 훈민과 가족 제도의 건전한 유지 발전, 국민의 인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적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해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유 후보자는 이념 논쟁을 제외하면 재산과 병역 문제 등 '결핵사유'로 볼 만한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아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정용욱 기자 dragon@

**KBIZ 중소기업중앙회**

**상담 받으시는 방법!**

**방문·유선**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와 지역본부를 방문하시거나 전화(1666-9976)를 하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소와 전화번호는 홈페이지([www.kbiz.or.kr](http://www.kbiz.or.kr)) 참조

**대상** 대한민국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상담 일** 매일 첫째, 셋째 주 (월)법률 (화)세무 (수)지식재산 (목)노무 (금)회계

**상담시간** 14:00~17:00

**홈페이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www.kbiz.or.kr](http://www.kbiz.or.kr))에 접속하시면 "사이버종합상담실"에서 간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 대한 특전**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 중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는 전문가가 소장, 의견서 등 서식을 무료로 작성해드립니다.

\* 단, 상담결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1인당 연 1회에 한함.

##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이 사장님의 길을 찾아드립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 비용이 걱정되신다구요?

마땅한 전문가를 찾기가 힘드시다구요?

지금 바로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을 찾아주세요.

믿을 수 있는 전문가가 무료로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 법률    ▣ 회계    ▣ 세무    ▣ 노무    ▣ 지식재산

### 지원 분야!

#### ▣ 법률

채권회수, 임대차, 부동산 및 상업 등기, 각종 인허가 등 행정법 관계, 기업설립, 정관 등 회사내규, 계약서 등

#### ▣ 회계

회계감사, 재무제표, 회계기준의 적용, 금융상품 가치평가, 주요 회계 이슈 검토, 업종별 면허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 등

#### ▣ 세무

개정대행(회계장부 작성), 재무상태 분석, 세무조정 계산서(세금신고서) 작성, 세금 관련 행정심판, 개별공시지가 등

▣ 노무

채용, 해고, 징계, 임금, 전보, 산재, 노사 분쟁, 성과관리 등 인사 관련 컨설팅 등

▣ 지식재산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의 취득, 분쟁해결, 지식 재산권 가치평가 등

▣ 무료 상담 1666-9976 / [www.kbiz.or.kr](http://www.kbiz.or.kr)



## '제빵사 5300명 직접고용' 잠정정지 결정 파리바게뜨 시간 벌었다

법원 "일단 현 상태 유지하라"  
29일까지 시정명령 이행 유예  
22일 심문기일…1차 판단 주목

제빵기사 5300여 명을 9일부터 직접 고용해야 했던 파리바게뜨가 법원 판단을 받을 때까지 당분간 현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파리바게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 심리에 앞서 집행 기한을 잠정 연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파리바게뜨는 29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일단 현 상태를 유지하라'는 재판부 결정은 법원 판단으로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이다. 법원 관계자는 "심문기 일을 늦게 잡다보니 기계적으로 일단 잠정 저분해놓은 것"이라며 "재판부가 사안에 대한 심증을 형성해 결정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심문기일은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적어도 29일 전까지는 이번 사건에 대한 1차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본안소송 전 집행정지 사건은 선고

기일이 별도로 잡히지 않는다. 재판부가 양측 주장을 검토한 뒤 인용 혹은 기각 결정을 하면 양 당사자에게 결과가 전달된다.

고용부는 9월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가 파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378명 전원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했다.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은 제빵기사에게 본사가 직접 업무지시를 해 왔다면 사실상 직접고용 관계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빵기사 1명당 과태료 1000만 원씩 총 537억 원이 부과된다.

고용부 조사 결과 가맹점주가 협력업체에 주는 제빵기사 1인당 도급비는 330만~350만 원인 데 반해 제빵기사들이 실제로 받은 임금은 평균 월 24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액은 협력업체가 쟁가는 셈이다.

SPC는 협력업체, 가맹점주와 함께 '3자 협작법인'을 설립해 제빵기사를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시정명령 집행 시기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난달 31일 소송을 냈다. 박은비 기자 silverline@

'마지막 사법시험' 55명 합격  
최연소 20세 이승우씨…女 25명

올해 말 폐지되는 '마지막' 사법시험에 55명이 최종 합격했다.

법무부는 제59회 사법시험의 최종 합격자 55명의 명단을 7일 발표했다.

이번 사법시험의 최연소 합격자는 만 20세의 이승우 씨였다. 이 씨는 서울대 국사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며, 사법시험 4회를 넘겨두고 고시 공부를 시작해 최연소 합격자의 기록을 썼다.

최고령 합격자는 박종현(45·남)씨로 이 씨와 스물 다섯살 차이가 났다. 최고

득점자는 2차시험 총점 457.22점, 평균 60.9점 을 얻은 이해경(37) 씨였다. 합격자의 평균연령은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높아져 올해 33.36세로 나타났다. 여성은 25명으로 여성 합격자 비율이 45%였다. 지난해 36.7%에 이어 더 늘었다.

올해를 끝으로 사법시험은 역사의 뒤 인길로 사라진다. 사법시험은 2009년 전국 25개 로스쿨이 개원하면서 존폐 논란이 꾸준히 일었다. 박미선 기자 only@

校費로 스크린골프·경조사비  
수도권 전문대 불법운용 적발

수도권의 한 사립 전문대가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조성한 교비를 불법으로 운용한 사실이 교육부 조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은 수도권의 한 사립 전문대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법인 이사회 허위 개최와 회계부정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학교법인 이사장을 비롯한 법인 이사와 감사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했다고 8일 밝혔다.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10월 출범한 뒤 첫 조치다.

교육부에 따르면 해당 법인과 학교는 국고 사업비 가운데 3000만 원은 외유성 관광 경비로 썼다.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도 확인됐다. 법인에서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 2억5000만 원과 보직교수 개인이 부담해야 할 경조사비 1700만 원, 스크린골프장 이용비 160만 원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회계에서 집행했다.

권고안은 전국 광역시·도 소속으로 자치경찰본부를 설치하고, 경찰 업무 관련 심의·의결기구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담았다.

## 배우자의 월세·고시원費用도 세액공제

### 올 연말정산 節稅 노하우

수시합격 자녀 등록금 냈다면  
내년 소득분에 반영하는게 유리  
부양가족 기부금도 공제 가능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한 월세나 고시원 임차 비용도 근로자의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공제를 소급해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7일 연말정산을 할 때 미리 행여 할 절세 도움말(Tip)과 유의 사례를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대학교에 수

### 연말정산 미리보기 3단계 서비스 개시

1단계	2단계	3단계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절세 팁 및 3년 추세 확인
1~9월 사용 정보 제공, 10~12월 사용 예상액 입력	1단계 예상액 반영, 그 외 항목을 통해 예상액 수정 (부양가족 인원, 각종 공제액 등)	항목별 맞춤형 절세 도움말, 세액 증감원인 분석을 위한 3년간 신고내용

시 합격한 자녀의 등록금을 미리 냈다면 이 비용은 자녀가 대학생이 되고 난 내년 소득분에 반영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교육비 공제 한도가 고등학생은 300만 원이지만 대학생은 900만 원으로 3배나 높기 때문이다.

또 자녀 세액공제는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 출생·입양 세액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자녀 세액공제는 자녀 수 1명당 15만 원씩, 셋째부터는

총 14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근로자가 부양하는 부모님·배우자·형제자매·자녀가 법정·지정기부금을 내면 해당 근로자가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기부해야만 공제가 가능하다.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혼한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다. 자녀의 배우자,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기족도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다. 장기주택자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는 주택의 소유자와 차입금의 차입자가 같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한편 연말정산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흠텍스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 트럼프 賛·反… 둘로 갈린 거리



## 광역市·道 자치경찰에 수사권 부여

폭력·사기 등 생활범죄 예방·단속… 정부, 시행 권고안 발표

### 내년 시행안 완성 2019년 시범 운영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밀그림이 밝혀졌다. 경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7일 일부 범죄에 대한 수사권 부여를 포함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 권고안을 발표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7일 일부 범죄에 대한 수사권 부여를 포함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 권고안을 발표했다.

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담았다.

권고안은 또 광역단체 산하 기초자치 단체와 연계를 강화하고자 시·군·구 단위로 시·군·구 자치경찰대를 두는 대신 광역 단위에서 범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시·도 직할로 시·도 자치경찰 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경찰은 범죄 예방과 단속, 위험 병기, 공공질서 유지 등과 관련한 생활 안전·교통·경비업무 및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자치경찰은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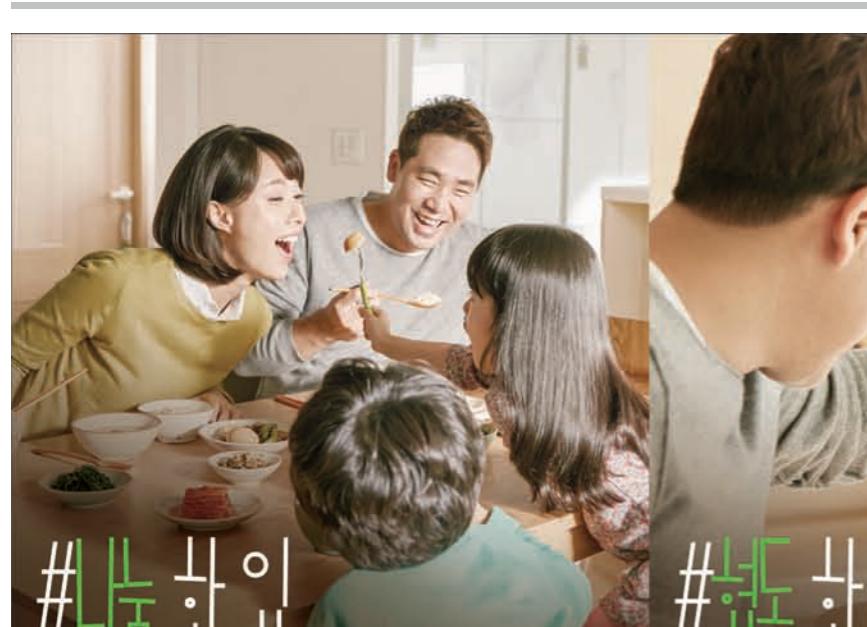
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벼운 사기·절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범죄, 공무집행방해·음주운전 사건 수사권도 보유한다.

자치경찰의 정치적 독립 확보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우선, 자치경찰공무원은 시·도 소속 지역 주민, 시민사회 인사, 치안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규정해 지자체장 임기(4년)와 일치하지 않도록 했다.

개혁위는 지방분권에 관한 현 정부의 의지가 강한 만큼 내년 중 자치경찰제 시행안이 완성되고, 2019년 시행을 거쳐 현 정부 임기 내에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 밥상에서 아이를 키우는 건 맛있는 음식 뿐이 아닙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계란반찬 한 개라도 나눠먹는  
나눔 한 입

아이들이 고사리손으로 차린  
협동 한 접시

부모님이 먼저 드시길 기다리는  
존중 한 수저

동생을 위해 생선가시를 떨라주는  
배려 한 점

인성밥상  
함께하는 밥상에서 아이의 인성이 자랄니다

초록우산 인성교육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복지관,  
지역본부, 가정위탁지원센터, 교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후원문의 •  
1588-1940





**에너지영토. 경계를 넘다**

87개국 수출, 그 이상을 향해

**전기차배터리. 불가능을 넘다**

1회 충전 주행거리 700km를 향해

**미래화학소재. 상식을 넘다**

강철보다 5배 가벼운 신소재를 향해

**고성능 윤활유. 한계를 넘다**

엔진수명 27% 연장, 그 이상을 향해

**대한민국을 넘어 더 큰 세상으로**

**에너지·화학의  
큰 그림을 그립니다**

 **SK 이노베이션**

**SK 에너지 SK 종합화학 SK 루브리컨츠  
SK 인천석유화학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

‘하이투자證·운용·선물’ 일괄 인수하는 DGB금융

## 社名에 DGB하이투자증권 검토

브랜드명까지 총 매각價 4500억

오늘 이사회에 주식매매계약 상정

박 회장 비자금 의혹 수사 진행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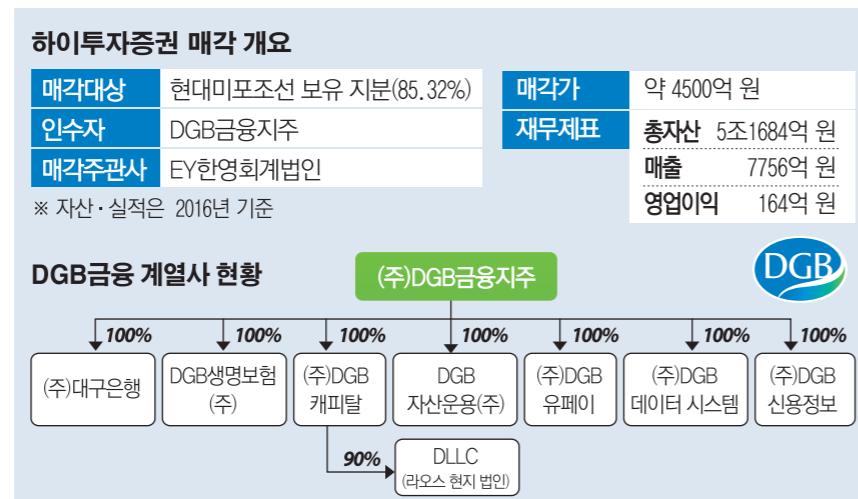
금융당국 대주주적격성 승인 관건

매각에 난항을 겪던 하이투자증권이 자회사와 브랜드명까지 페기지로 DGB금융지주에 팔리게 됐다. 현대중공업은 하이투자증권 매각으로 자구계획 실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DGB금융지주는 8일 이사회를 열고 현대미포조선이 보유한 하이투자증권 지분 85.32%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건을 심정하기로 했다. 최종 매각가는 약 4500억 원 선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수에는 하이투자증권 자회사인 하이자산운용과 현대선물은 물론 하이투자증권 브랜드 사용권까지 포함됐다. 하이투자증권 브랜드 사용권은 현대미포조선이나 지배회사인 현대중공업이 아닌 하이투자증권이 자체 보유하고 있다. 이에 DGB금융지주는 해당 브랜드 가치까지 인수 대금에 포함하면서 향후 사명 변경 시 ‘DGB하이투자증권’ 또는 ‘하이투자증권’으로 기존 브랜드를 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상 DGB금융 계열사는 DGB생명보험, DGB자산운용, DGB캐피탈 등과 같은 명칭을 사용해 왔다.

당초 7000억 원이 넘었던 하이투자증권 장부가액이 현대미포조선의 손상차손 인식으로 4500억 원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DGB금융지주가 하이자산운용



과 현대선물을 재매각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당초 DGB금융지주는 하이투자증권 실사를 마무리한 8월 말 내부적으로 인수 결정을 마쳤다. 그러나 이들 자회사까지 인수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길어져 최종 결정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DGB금융지주는 지난해 LS자산운용(현 DGB자산운용)을 인수해 이미 자산운용사를 보유하고 있다. 현대선물의 장부가액은 306억 원에 달하지만 지난 해 순이익은 7900만 원에 불과하다.

인수 작업은 이르면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현재 박언규 DGB금융지주 회장 등 경영진이 비자금 의혹 수사를 받고 있어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승인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DGB금융지주와 현대중공업은 각각 법무법인 태평양과 법무법인 지평 등 대형律所를 법률자문사로 선임해 세부적인 매각조건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 DGB금융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지주가 아닌 대구은행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하이투자증권 인수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하이투자증권 매각으로 자구계획 실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6월 비핵심 자산 매각과 인력 구조조정 등을 통해 2018년까지 3조5000억 원을 마련하겠다는 자구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미 현대차와 KCC, 포스코 등 주식과 유휴 부동산 매각, 현대호텔, 현대로보티кс 등 비핵심 사업 정리로 목표 금액을 채웠다. 그러나 지난해 예측한 선별 발주 추세보다 수주 절벽이 더욱 심해지면서 추가 자금 확보가 절실히 성황이다.

이에 하이투자증권 매각으로 약 4500억 원이 유입됐지만 추가 자회사 매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대중공업은 현재 독일 애케법인, 중국 타이안법인 등 비핵심 사업 정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다운 기자 gamja@  
김보름 기자 fullmoon@

## 産銀-박삼구 ‘금호타이어 상표권 갈등’ 재점화하나

박 회장 무상 양도 관련 口頭약속

문서화 안돼… 향후 사업 진행 차질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둘러싼 채권단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간 갈등이 끝나지 않고 있다.

8일 채권단에 따르면 KDB산업은행은 우선매수권 포기와 관련 문서를, 금호타이어는 상표권 무상 양도와 관련한 문서를 10월 26일에 금호산업에 각각 보

냈다.

산은과 금호타이어는 금호산업 측에 10월 30일까지 회신해달라고 했으나 금호산업은 현재까지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이에 산은은 이달 2일에 상표권 사용 협조를 요구하는 문서를 다시 보내 6일 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으나 금호산업은 여기에도 응하지 않았다.

산은은 박 회장이 언론을 통해 우선매수권을 포기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우선매수권 포기 확인서를 보내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 또 우선매수권 부여 여부는 채권단이 결정 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상표권 사용 여부는 이와 상황이 다른 것으로 분석된다. 상표권 사용 허용 여부는 전적으로 박 회장(금호산업)이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박 회장 측이 문서로써 상표권 사용 허용을 확인해주지 않으면 상표권 포기 합의는 구두선에 그칠 수 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문제는 외부인사가 행장 후보군에 포함될 경우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는 점이다. 정부의 인사개입이 가시화되면 힘 있는 인사에 출을 대는 행태가 반복될 것이라 관측이다. 과거 KB금융처럼 경영진의 장기간 공백 상태를 틈타 정부가 나서 낙하산 인사를 투입하는 사례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깊다.

예금보험공사는 임추위 참여를 놓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며 ‘관치’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 예보는 1월 우리은행 행장 선출 때 “은행의 경영자율성을 존중한다”며 임추위에 들어오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내부 갈등을 없애고 빠른 경영 안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여론전을 펼치며, 임추위 진입을 위한 물밑 작업을 펼치고 있다. 또 다른 이사회 관계자는 “예보가 관치 논란에 한발 뒤로 물러난 상황이지만, 사안의 핵심은 우리은행 최대 주주는 예보로 이사회 내부에서 의결권 비중이 가장 높아,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철우 기자 acw@

## ‘채용비리’ 의혹 우리은행

# “차기 銀行長 자격, 외부人事로 확대”

한일·상업銀 계파 갈등 봉합에 “중립적 인물 등용” 기류 확산

임추위 구성前 이사회서 논의… ‘낙하산’ 논란 우려는 여전

차기 우리은행 지원자격이 ‘외부 인사’로 확대될 전망이다. 우리은행 전신인 한일은행과 상업은행 계파 간 갈등을 봉합하는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외부 출신 인사가 중용돼야 한다는 기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우리은행 이사회 한 관계자는 8일 “훈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시일 내 차기 행장 선출을 마무리짓겠다는 것은 이사회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무엇보다 조직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인적쇄신의 폭을 넓게 생각한다면, 외부인사 중용 가능성은 현재 상황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후반 은행장 후보를 추천하는 임원주총회(이하 임추위) 구성에 앞서, 이사회 내부에서 은행장 자격요건을 확대하자는 기류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그는 이어 “아직 이 문제를 놓고 이사들이 모여 본격적으로 의견을 개진

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번주에 열리는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사회 내부에서 은행장 자격요건 확대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1월 우리은행 과점주주(IMMPE, 한국투자증권, 동양생명, 기움증권, 한화생명) 추천 사외이사들은 차기 행장 조건으로 우리은행 및 계열사 5년 내 전·현지 부행장급 이상 경력을 앞세워 외부인사 진입을 차단했다. 민영화 이후 첫 행장 인선에서는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내부 사정에 밝은 인사의 필요성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특혜채용 관련 투서로 한일과 상업 간 골 깊은 갈등이 다시 한 번 확인되면서 중립적인 인물을 등용해야 한다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대립 해소를 명분으로 외부 낙하산 인사가 내려오면 이런 내부 개혁 작업이 차질을 빚고 오히려 내부 갈등을 키울 것이라 우려도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설립한 지 100년 이상된 은행인데, 계파 대립 등 문제를 정화할 능력이 없겠냐”며 “오히려 이를 명분으로 은행을 잘 모르는 낙하산 인사를 앉히면 은행이 망가지게 된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2008년 이종희 행장 체제(2008년 6월~2011년 3월)부터 내부 출신이 은행장이 됐다. 이전 이덕훈 행장(2001~2004년), 황영기 회장 겸 행장(2004~2007년), 박해준(2007~2008년) 행장은 모두 외부 출신이다.

한편 금융노조도 7일 내놓은 성명서에서 “우리은행은 반드시 내부 결속력을 다지고 새로운 도약을 이끌 수 있을 만한 내부 인사로 선임해야 한다”며 “정부는 우리은행 민영화 당시의 약속을 싱기하고 그 과정에 절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규준 기자 abc84@

## 人事·組織 확 뜯어고친다

우리은행 ‘혁신TF’ 가동

계파대립 등 내홍 재정비

검찰 압수수색과 행장 사퇴로 초유의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은행이 조직 안정을 위한 TF팀을 꾸리고 내부 혁신 작업에 돌입했다. 채용절차 등 인사시스템과 계파대립 등 조직문화를 학습해 고친다는 계획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고영배 본부장(퇴직연금부)을 책임자로 한 혁신 TF팀을 꾸리고 6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혁신 TF팀은 다음 달 29일까지 2달 동안 운영된다. TF팀은 본부장을 포함해 총 14명으로 꾸려졌다. 고 본부장은 한일은행 출신이다.

TF팀은 부장, 부부장, 차장, 과장 등 전 직위가 망라돼 전 사적 차원의

혁신 작업에 돌입하게 된다. 본부장 1명, 부장 1명, 부부장 2명, 차장 4명, 과장 3명, 대리 2명, 계장 1명 등이 참석했다.

TF팀은 인사시스템과 조직문화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친다는 방침이다.

앞서 6일 손태승 부문장은 사내 이메일을 통해 “인사시스템과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향후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 공정화 등을 통해 영업현장 직원들과 소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사 채용비리와 조직 내부계파 갈등으로 우리은행이 내홍을 겪고 있는 만큼 이를 재정비하고 뜯어고친다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1999년 1월 한국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이 어느 한쪽의 흡수합병이 아닌, 대등 합병함에 따라 양 계파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다. 하지만 계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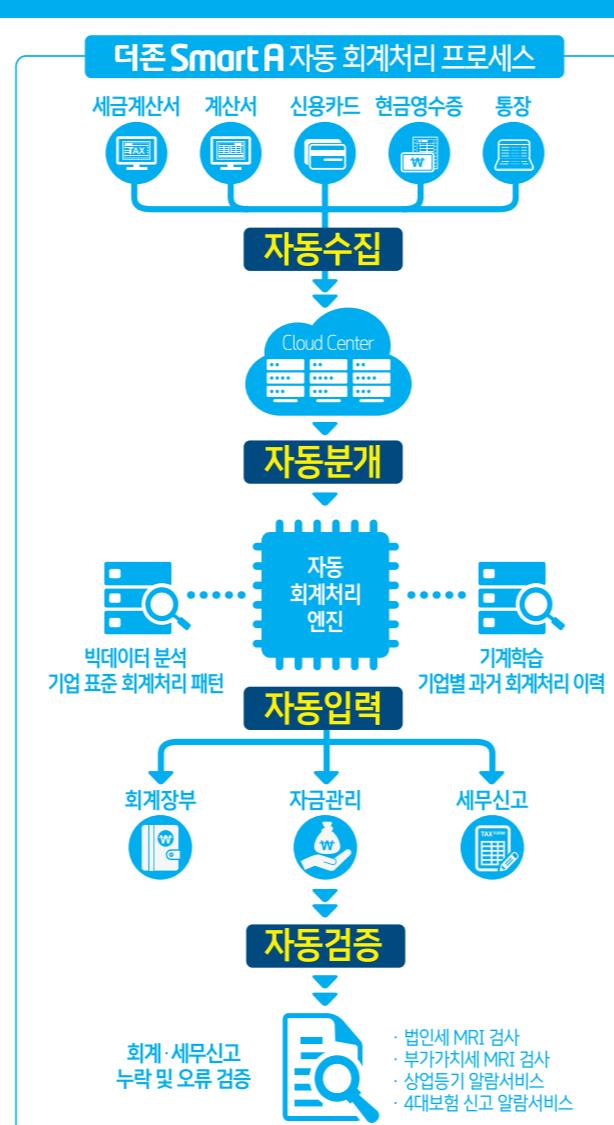
## 인공지능 시대 회계프로그램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다양한 기계학습 및 딥러닝 등을 구현한 인공지능 회계프로그램 더존 SmartA

회계증빙을 자동수집, 자동분석,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세무신고 데이터의 오류까지 자동으로 검증해줍니다.

### 더존 프로그램의 주요 모듈 구성

재무회계관리 건설회계관리 인사급여관리 일용노무관리  
구매관리 재고관리 판매(영업)관리 생산원가관리  
외주관리 세무조정 전자세금계산서 금융CMS



국가공인 AT(회계실무/세무실무)자격시험

더존 홈페이지 자격시험 사이트에서 학습강좌 무료 수강

지금 검색창에서 더존 자격시험 을 검색하세요

국가기술자격 전산회계운용사, 국가공인 ERP정보관리사도 공식 수험용 프로그램인 더존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세요

# ‘아이폰X’으로 번진 OLED ‘번인’ 논란… 삼성에 부메랑 되나

〈burn-in: 장시간 같은 화면을 켜둘 경우 화면 잔상이 남는 현상〉

**삼성, LG OLED TV 겨냥해 동영상 올리며 맹공  
애플 “아이폰X에서도 번인 나타날 수 있다” 언급  
아이폰 탑재 OLED, 삼성디스플레이에서 만들어**

삼성전자가 불붙인 OLED ‘번인(burn-in)’ 논란에 애플 ‘아이폰X’이 가세했다. 애플이 아이폰X에서도 번인이 나타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번인은 장시간 같은 화면을 켜둘 경우 그 부분의 색상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거나 화

면 잔상(얼룩)이 영구적으로 남는 현상인데, OLED 디스플레이의 단점으로 자주 된다.

애초 삼성전자는 LG전자 OLED TV를 겨냥해 번인 현상을 지적했는데, 이는 삼성에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이폰X에 탑재된 OLED는 삼성디스플레이에서 만들었다. 삼성전자 갤럭시S8과 갤럭시노트8에도 OLED가 탑재됐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디스플레이 지원 페이지를 통해 “아이폰 X을 장시간 사용할 시 디스플레이에 시각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번인 현상 가능성을 설명했다. 애플은 “아이폰X에 적용된 슈퍼 레티나 디스플레이는 업계에서 OLED 번인 현상이 가장 적은 수준”이라며 “OLED는 축면에서 바라봤을 때 색상이나 색조가 조금씩 다

르게 보이는 특징이 있고, 이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했다. 이는 아이폰X 역시 번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는 말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최근 OLED TV의 번인현상에 대해 공격 수위를 높여왔다. 지난 달 뉴스룸에 올린 ‘알아두면 쓸모 있는 TV 상식, 번인 현상 왜 생기는 걸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음향·영상 전문 웹사이트인 ‘AVS포럼’에서 벌어진 번인 현상 토론과 미국 IT 매체 알팅스의 실험 결과를 거론하며 OLED TV의 약점으로 번인 현상을 지적했다. 또 유튜브에 ‘QLED

대 OLED, 12시간 화면 잔상 테스트’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리며 OLED TV의 번인 현상을 맹공했다.

이는 자사 QLED TV와 경쟁을 펼치는 OLED TV의 단점을 부각하기 위한 마케팅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OLED 번인 현상 지적이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와 삼성디스플레이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전 세계 시장에서 중소형 OLED 점유율 95%를 차지하고 있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역시 스마트폰에 OLED를 탑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삼성전자가 OLED 번인 현상을 널리 알리면서, 자사 QLED TV 판매량 증가에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OLED 번인 현상에 대한 거부감이 스마트폰에까지 번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평균 사용 기간이 2~3년인 스마트폰은 OLED를 사용하더라도 번인 현상이 눈에 띄지 않지만, 내구성이 중요한 TV나 게임 모니터는 OLED를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송영록 기자 syr@

## 쌍용차, 해외진출 속도

**“G2서 팔아야…” 美 진출 움직임  
부진한 유럽·중동 공략 시동 건다**

‘G4렉스턴’ 가솔린 모델 유럽 출격  
수출효자 ‘티볼리’ 중동 론칭 재정비

최근 쌍용자동차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주력시장인 러시아와 중동에서의 부진이 꼽힌다. 쌍용차의 미국과 중국 진출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해석되는 것은 수출 활로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른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G2’에서 판매를 시작해야 전 체적인 수출 규모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최종식 쌍용차 사장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판매 규모를 늘리기 위해 선 미국 진출은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해 왔다.

티볼리에 대한 과도한 편중 현상도 부담이다. 티볼리를 올해 10월까지 수출 판매로만 1만365대가 팔렸다. 이는 이 기간 쌍용차의 전체 수출 물량(3만 134대)의 45.3%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G4렉스턴, 코란도 스포츠, 코란도C 등의 성공 여부가 쌍용차의 실적 개선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한편, 쌍용차는 올 9월 티볼리를 앞세워 내수에서 첫 3위를 기록하면서 3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지만, 수출 실적 부진으로 올해 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 부진은 판매 실적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쌍용차의

3분기 내수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했지만, 수출 부문은 28% 감소했다. 쌍용차의 전체 실적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72.6%에 달한다. 양용비 기자 dragonfly@



**삼성, 한화종합화학 매각… 1조 실탄 장착**

본격 M&A·투자 나설 듯

삼성물산과 삼성SDI가 가지고 있던 한화종합화학의 지분 전량을 매각하기로 했다. 1조 원가량의 현금화로 삼성이 인수합병(M&A)이나 사업확장·투자를 위한 실탄이 마련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삼성SDI는 7일 각각 보유한 한화종합화학 지분 20.05%(약 852만 주)와 4.05%(약 172만 주)를 팔기로 하고 외국계 투자은행(IB)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삼성이 가진 총 24.1%의 지분은 2015년 삼성그룹이 화학·방산 관련 계열사를 한화그룹에 매각한 ‘빅딜’ 당시 남겨놓은 잔여 지분이다.

삼성 계열사였던 삼성종합화학은 한화에 매각되면서 한화종합화학으로 이름을 바꿨다. 당시 남은 지분은 한화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었는데, 이에 한화는 2021년까지 한화종합화학을 성장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즉, 삼성이 보유한 잔여 지분을 현금화할 수 있

도록 노력하겠다는 것. 삼성물산과 삼성SDI는 2022년까지 한화종합화학의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보유지분의 일정 금액을 한화에 되팔 수 있는 풋옵션(주식매도청구권)을 받았다.

한편, 삼성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 역할인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사들이기 위한 지분 매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험사에 대한 신(新)지급 여력제도가 2021년부터 시행되면 삼성생명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8.13%에 대해 9조 원에 가까운 준비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화종합화학의 가치가 높아진 지금 이 현금화 적기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화종합화학은 2015년 말 2656억 원이었던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EBITDA)이 지난해 5753억 원으로 121% 증가했다. 한화종합화학의 올해 실적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여 삼성물산 보유지분 종가치는 1조~1조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류정훈 기자 jungh216@

## “中 중저가 제품과 차별화”… 철강3사 ‘브랜드 전쟁’ 본격화

**포스코 ‘기아스틸’·현대제철 ‘에이치코어’·동국제강 ‘렉스틸’  
공급과잉에 어려움…주력제품 고부가가치 시장 선점 나서**

국내 철강3사가 잇따라 주력 제품에 브랜드를 입히면서 ‘고부가가치 시장’ 선점을 노리고 있다. 중저가 중국산 제품과 차별화해 매출을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8일 국내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 등 고로 3사가 모두 주력 제품 브랜드화를 완료하면서 고부가가치 시장 선점을 박차를 가지고 있다. 소비재가 아닌 철강재에 이름을 붙이는 마케팅은 이해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움직임의 배경에는 ‘공급과잉’ 문제가 있다. 국내 철강업계는 지난해

초까지 중국산 철강재 과다 공급으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후 중국 정부는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고, 결국 자국 철강업계에 대한 감산 정책을 추진하기로 해 업황이 호조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대제철은 내진용 철강재 브랜드인 ‘에이치코어(H CORE)’를 론칭했다. 그러나 변수는 남아 있다. 중국 철강 업계가 구조조정을 마친 뒤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국내 철강업계는 기술력과 함께 영업 역량을 강화하는 추세다. 포스코의 대표 브랜드는 ‘기아스틸(Giga steel)’이다. 기아스틸은 1㎿ 면적당 100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차

세대 강판이다. 인장강도가 1GPa(기파스칼) 이상인 초고강도강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기아스틸은 알루미늄 등 대체소재에 비해 경제성, 경량화는 물론 높은 강도로 안전성 측면에서 우수한 편이다. 알루미늄 부품보다 더 복잡한 형상의 제품을 제작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대제철은 내진용 철강재 브랜드인 ‘에이치코어(H CORE)’를 론칭했다. 그러나 변수는 남아 있다. 중국 철강 업계가 구조조정을 마친 뒤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대제철은 2005년 국내 최초로 내진용 H형강을 개발한 뒤 내진기능을 강화한 품목을 확대하고 있다.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의무가 강화되는 등 관련 법령에 대한 대비로 풀이

된다.

동국제강은 ‘렉스틸(Luxsteel)’을 내세우고 있다. 렉스틸은 고급(luxury) 건축 내외장재다. 2013년에는 가전제품용 컬러강판에 ‘앱스틸’이라는 브랜드를 붙이기도 했다. 앱스틸은 가전제품을 뜻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ance)’과 적용을 의미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어 2015년에는 ‘디코일(DKOIL)’이라는 코일철근도 출시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저품질 물량이 밀려들면서 시장 가격이 무너지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국내 철강사들이 프리미엄 제품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려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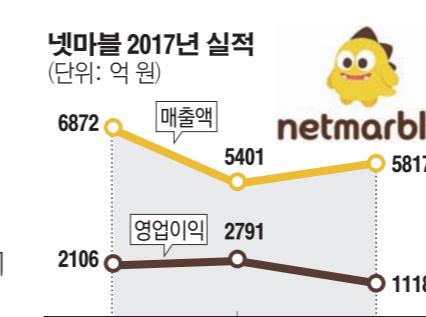
이광호 기자 khlee@

## 亞 사로잡은 ‘리니지2’… 넷마블게임즈 연매출 2조 눈앞

**3분기 누적매출 1조8090억 달해  
'리니지2 레볼루션' 日 등 매출 1위  
컴투스도 해외 매출 1101억 성과**

넷마블게임즈가 해외 시장의 흥행에 힘입어 거칠없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넷마블게임즈는 올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 1조8090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연매출 1조5000억 원을 이미 넘어섰다. 4분기 실적까지 더해지며 지난해 연매출을 뛰어넘었다.

특히 3분기 해외 매출은 4102억 원으



로 전제 매출액 1118억 원을 기록했다.

넷마블게임즈는 올 3분기 영업이익이 1118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73.1%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매출액은 5817억 원으로 62% 늘었다고 7일 밝혔다. 넷마블의 매출은 1분기 6872억 원, 2분기 5401억 원에 이어 이

으로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며 일본 등에서 게임 매출 1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리니지2 레볼루션의 3분기 국내 매출은 932억 원,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매출은 996억 원을 기록했으며 일본은 701억 원을 달성했다. 일본의 경우 8월 말에 출시돼 약 한 달 만에 거둔 성과로 4분기에는 매출액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 외에도 북미 자회사 ‘카밤’의 ‘마블 올스타 배틀’이 7월 미국 앱스토어 매출 1위를 기록하는 등의 성과도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

권영식 넷마블 대표는 “리니지2 레볼루션은 세계 게임시장 2위 규모인 일본을 비롯해 아시아 11개국에서 출시 직후부터 지금까지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며 “15일 레볼루션을 북미, 유럽 등 54개국에 출시하며 국내에는 모바일 MMORPG ‘테라M’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하반기에는 기대감이 더 높다”

고 말했다.

또 다른 게임업체인 컴투스도 3분기에 해외매출 1101억 원을 달성해 8분기 연속 1000억 원을 넘는 기록을 이어갔다.

컴투스는 3분기 매출액 1257억 원, 영업이익 496억 원을 각각 기록했는데 특히 매출액은 전체의 88%인 1101억 원을 해외에서 거둬들였다. 북미와 유럽 시장이 해외 매출의 61%를 차지하며 높은 성과를 올렸다.

컴투스는 앞으로도 글로벌 IP(지식재산권)의 확장과 개발을 통해 세계 시장 공략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머너즈워’는 이달 길드 전령전 등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해 콘텐츠를 강화한다. 특히 25일 미국 LA에서 글로벌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해 전 세계 유저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게임 축제 문화를 개척할 방침이다.

조성준 기자 tatio@

## 롯데정밀화학, 6년 만에 태양광 소재사업 손 뗈다

롯데정밀화학이 6년 만에 태양광 기초소재인 폴리실리콘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뗈다. 미국 3대 태양광업체와 함께 폴리실리콘 생산회사를 설립했지만, 태양광 업황 악화로 인해 지난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한 뒤 결국 파산까지 이룬 것이다.

한화종합화학의 가치가 높아진 지금 이 현금화 적기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화종합화학은 2015년 말 2656억 원이었던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EBITDA)이 지난해 5753억 원으로 121% 증가했다. 한화종합화학의 올해 실적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여 삼성물산 보유지분 종가치는 1조~1조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류정훈 기자 jungh216@

에디슨에 넘기면서 지분율을 15%까지 낮췄다. 현재 SMP의 최대주주는 선에디슨의 100% 자회사인 SPS다.

SMP는 선에디슨이 오랜 태양광 시장 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유동성 위기로 미국 뉴욕연방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하면서 연쇄적으로 위기를 맞았다.

최대주주인 SPS가 판매한 폴리실리콘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작년 한 해 순손실만 3404억 원이다. 결국 SMP는 지난해 6월 법정관리에 들어가 매각을 추진했지만 인수자를 찾는 데 실패, 1년 5

개월여 만에 파산을 신청했다.

롯데정밀화학 측은 “SMP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법원이 정한 기한인 이달 13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불가능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불가피한 바, 관계법령에 따라 파산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롯데정밀화학은 SMP에 투자한 자금은 물론 매출채권·미수금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됐다. 롯데정밀화학이 SMP에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은 343억 원, 미수금은 73억 원으로, 지난해 6월 법정관리에 들어가 매각을 추진했지만 인수자를 찾는 데 실패, 1년 5

개월여 만에 파산을 신청했다.

이에 손실금에 대해선 지난해 회계상 처리를 마쳐 추가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태양광 사업의 실패라는 오점을 짚게 됐다.

회사 관계자는 “SMP의 유동성 위기로 인해 평가손실이 예상되며 손실 규모는

# '1세대 스포티지', 美 포드 아이디어였다?

김준형의  
오토 인사이드

대한민국 자동차 野史

① 기아산업 '스포티지'

1985년대 중반, 공업 합리화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1979년 10·26 사태 이후 군사정권이 등장하면서 기업은 철저한 통제 아래 놓이게 됐지요. 자동차 산업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특화 전략을 평계로 현대차는 소형차 생산을, 대우(당시 새한차는 중형차 생산을) 전담하게 됩니다. 기아산업은 상용차 권한만 주어졌고, 동아차는 특장차 전담이 됐습니다. 이들은 오늘날 현대차와 한국GM, 기아차, 쌍용차로 각각 변모하게 됐지요. 공업 합리화 조치 해제 이후 승용차 시장은 현대차와 대우차, 기아산업의 3파전으로 구도가 짜였습니다. 이때가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근대적 기반이 갖춰지기 시작한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영겁의 시대를 지나오며 대한민국 자동차 역사가 피란민정한 시대를 겪었습니다. 이 가운데 흔히 알려지지 않았던, 민간 기록만으로 전해지는 소소한 역사(野史)들을 모았습니다. 총 8회에 걸쳐 게재하고, 정리는 본지 자동차 전문 김준형 기자가 맡을 예정입니다.

포드, 1990년대 기아산업에 프라이드 9만대 주문  
美서 '페스티바'로 판매…생산공장 없이 마진 쏠쏠

이후 소형 SUV 10만대 주문하며 주식 절반 요구  
기아, 제안 거절하고 1년 만에 '스포티지' 만들어



▲ 기아차에 아이디어를 빼앗긴 포드가 뒤늦게 마쓰다와 공동으로 개발해 선보인 소형 SUV 이스케이프.



▲ 기아산업 1세대 스포티지는 획기적인 콘셉트를 앞세워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당시 기준으로 이처럼 작은 사이즈 SUV는 세상 어디에도 없었다.

1990년대 자동차 시장은 '3파전'이라는 단어가 유독 많이 쓰였다. 정부 규제 속에 뒤늦게 소형차 시장에 뛰어든 기아산업이 본격적인 경쟁구도를 갖추기 시작한 때였다. 당시 국산차 시장은 현대차와 대우차, 기아산업이 치열한 판매 경쟁을 벌였다.

부도 직전까지 몰렸던 기아산업은 원박스카 봉고를 앞세워 회생했다. 이를바 '봉고 신화'였다. 이후 소형차 시장에 다시 진출하면서 소형차 프라이드(1세대)를 앞세워 돌풍을 일으켰다.

◇마쓰다가 개발하고 기아산업이 만들어 포드가 판매 = 기아산업은 일찌감치 일본 마쓰다에서 소형차(브리사)를 들여와 조립한 경험이 있었다.

1세대 프라이드 역시 마쓰다 121을 베이스로 만들었다. 이제 막 자동차 혁명이라 불리는 '모터리제이션'이 시작하던 무렵이었고, 소형차 프라이드는 그 신호탄이었다. 젊은이는 물론 나이 든 멋쟁이 오너가 물아도 멋진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차였다.

당시 기아산업은 후발주자답게 현대차 그리고 대우차와 다른 길을 찾았다. 똑같은 시장에 똑같은 콘셉트를 앞세워 경쟁하기보다 그들과 다른 길을 가겠다는 의지가 뚜렷했다. 현대차가 엑셀과 프레스토, 대우차가 르망을 앞세워 1500cc 시장을 선점한 상황에서 기아산업은 이보다 작은 1300cc급 소형차 시장을 처음 열기도 했다. 결국 선택은 맞아떨어졌고 기아산업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가며 대우차를 추월하기도 했다. 우리 자동차 역사에서 기아산업이 마침내 존재의 당위성을 찾아가던 때였다.

그 무렵 미국 빅3 가운데 하나인 포드는 넘치는 현금성 자산을 앞세워 글로벌 M&A에 나섰다. 이들은 일본 마쓰다 지분까지 보유하며 영역을 넓혀왔다. 당시 큰 세단만 만들었던 포드는 마쓰다 소형차를 미국으로 가져와 팔기를 원했다. 그런데 일본 공장의 인건비가 적잖게 비쌌다. 그러던 참에 마쓰다 121을 조립 생산하는 기아산업을 살펴

보고 깜짝 놀랐다. 조립 기술

이 튼실하고 인건비 측면에서도  
충분한 매력이 있었다.

결국 미국 포드는 기아산업에 프라이드 9만 대를 주문했다. 한국에서 차를 받아와 포드 엠블럼을 달고 차 이름은 '페스티바'로 판매했다. 개발은 마쓰다가, 생산은 기아산업이 맡았고, 포드는 팔기만 했다. 손 안 대고 소형차 하나를 뜯어 얻었던 포드는 속으로 패재를 불렀다. 생산공장 하나 없이 대량 판매 마진을 부지런히 챙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극비리에 진행된 포드의 소형 SUV 프로젝트

= 재미를 붙인 포드는 프로젝트 2단을 계획했다.

이번에는 프로젝트명 UW-52라는 소형 SUV였다.

당시 미국에서는 풀사이즈 SUV가 인기를 끌었다.

둔탁한 픽업 트럭을 개조해 승용차 분위기도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이런 SUV를 소형으로 개발할 생각은 아무도 하지 못했다. 포드는 도심에서 즐길 수 있도록,

그리고 여성 오너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둔탁하지 않고 둥글둥글한 디자인을 갖춘, 작고 양증맞은 소형 SUV 개발을 준비 중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디트로이트 공장의 생산비용이 문제였다. 일본 공장의 인건비가 저렴했지만 운송비를 감안하면 남는 게 없었다. 결국 포드는 기아산업을 다시 찾았다. 그리고 소형 SUV 프로젝트를 내밀었고, 연간 15만 대 가운데 한국에 10만 대 주문의사를 밝혔다.

당시 기아산업의 연간 생산량은 20만 대에 채 미치지 못했다. 현재의 화성공장을 건설하기 이전이었고, 공장은 시흥군 소하리 공장(현재 광명공장)이 유일했다. 그런 마당에 포드가 소형 SUV 10

만 대 주문을 내놓았으니 솔깃한 제안이었다.

그러나 최종협상에 이르러 포드는 냉철함을 드러냈다. 일본 마쓰다의 지분을 야금야금 삼키듯, 소프티지 10만 대 주문을 조건으로 기아산업 주식 50%를 요구했다.

당시 김선홍 기아산업 회장이 보기엔 포드의 조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었다. 물건을 대규모로 사 줄 테니 공장을 내놓으라는 심보였다. 앞서 일본 마쓰다 역시 위기에 몰리던 상황에서 포드의 제안을 받고 지분을 넘긴 상황이었다.

자존심이 상했던 기아산업은 냉큼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포드와의 관계를 끊어 버렸다. 한국의 작은 자동차 회사 기아산업의 조강수에 포드도 적잖게 당황했다. 그리고 곧바로 한 걸음 물러난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기아산업이 당시 계획했던 아산공장(지금의 화성공장)을 별도 법인으로 만들고 그 지분의 50%를 요구하는 수준으로 양보를 했다. 그러나 이 제안 역시 결렬됐다.

당시 기아산업의 자부심은 하늘을 찌렀다. 회사가 부도 직전까지 몰렸다가 원박스카 '봉고'를 개발해 부활한 상황이었다. "두들겨 맞더라도 결코 무릎은 굽지 않겠다"는 게 그들의 의지였다.

협상이 결렬되고 미국 포드가 되돌아가고 나서 당시 김선홍 회장은 곰곰이 생각했다. 따지고 보면 미국 포드가 제안한 소형 SUV 콘셉트는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였다. 김 회장은 곧바로 상품기획팀을 소집했다. 그리고 냉큼 포드가 제안했던 소형 SUV 개발에 착수했다. 결국 1년여 만에 세상이 깜짝 놀랄 획기적인 콘셉트를 지닌 소형 SUV를 만들어냈다. 이 차가 기아산업이 최초로 선보인 1세대 스포티지였다. 자동차전문기자 junior@

피곤해도 함께하는  
멋있는 아빠가  
되어주세요

**SMART 비타민D를 더해  
더욱 강력해진 비맥스 골드**

SMART 비타민B는 물론 이연과 비타민D까지!  
생체 이용률이 높고, 흡수 빠른 활성형 비타민 비맥스 골드로  
건강하게 빛나는 오늘을 경험하세요!

활성형비타민  
**벤포티아민**  
50mg

칼슘흡수 및  
뼈 건강에 효과  
**비타민D**  
1000 IU

이연의 보급  
**산화아연**  
30mg

피로해소를 위한  
**비타민C**  
200mg

SMART 기능성비타민제  
**비맥스 정**  
골드

광고심의필 : 1289-1700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침보필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 로드 임프레션 볼보 '더 뉴 XC60'

外觀은 젊게… 달릴 편 조용하게…

이름 빼고 다 바꿨다

8년 만의 풀체인지 2세대 모델

차체 낮아지고 길어져 역동적 느낌

소음 없지만 가속 반응은 아쉬워



예상보다 조용했다. 운행 중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박차고 나가는 힘은 충분했다. 가속 반응에서 아쉬움이 있었으나, 190마력의 출력과 40.8kg.m의 토크는 공차중량 1880kg의 더 뉴 XC60과 함께하기에 부족하지 않았다.

가솔린 모델 T6 AWD의 정숙성은 더욱 뛰어났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동승한 동료 기자 가 짐짓 눈을 붙이기 위해 부족함이 없었다.

이러한 변화에도 더 뉴 XC60은 여전히 '볼보스러운' 차였다. 볼보자동차는 더 뉴 XC60을 선보이며 인텔리세이프(intelisafe, 볼보의 지능형 안전 시스템 총칭) 시스템을 보강했다. 조향 지원(Steering Support)을 통한 충돌 회피 지원 기술 3가지와 오토 브레이킹에 대한 조향 지원을 비롯해 새로운 안전 시스템을 더 뉴 XC60의 전 트림에 적용했다.

더 뉴 XC60의 판매가격은 디젤 모델인 D4 AWD의 경우 트림에 따라 6090만~6740만 원, 가솔린 모델인 T6 AWD는 6890만~7540만 원이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 800만 고객 한 사람 한 사람 곁에 **DB금융**이 있습니다



DB손해보험  
DB생명  
DB자산운용

DB금융투자  
DB캐피탈  
DB저축은행

##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금융 - DB금융네트워크



## 2018년 流通업계 키워드는 SHIFT

오프라인 채널 부진 온라인 고속 성장  
첨단기술 접목 미래형 매장으로 大轉換

2018년 유통업계 키워드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SHIFT'가 예고됐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전통 오프라인 채널의 부진, 온라인 채널의 고(高)성장세가 계속되면서 첨단 기술로 무장한 미래형 매장으로 진화가 가속화할 전망이다.

한국체인인스토어협회는 7일 서울 양재동 엘타

워 그레이스홀에서 '2018 유통 대전망 세미나'를 열어 내년도 유통 패러다임이 '대전환(SHIFT)'할 것이라는 이마트 유통산업연구소의 전망을 소개했다.

SHIFT는 트렌드 변화를 대표하는 △Small Format △Hybrid △Intelligent Commerce △Fun & Experience △Technology 등의 앞글자를 따 조합한 것이다.

**Small Format** 1~2인 가구 맞춤형 소형포맷  
**Hybrid** 다양한 소비자 요구 융합  
**Intelligent Commerce** 지능형 통합 유통  
**Fun & Experience** 재미와 경험 제공  
**Technology** 첨단기술로 무장

내년 유통업계는 1~2인 가구와 맞별이 가구의 증가, 고령화 심화 등으로 대형 포맷의 성장

이 정체되는 대신 균형 소형 포맷의 고성장이 예상됐다. 또 유통시장이 성숙화하면서 경쟁 심화로 인해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충족 시킬 수 있는 융합 포맷 증가가 점쳐졌다.

기존 직관 의존형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고객 맞춤형 상품 추천과 O2O(Online to Offline) 온라인 연계 등 지능형 통합 유통으로 진화하고,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재미와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 오프라인 접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상품 진열 중심의 아날로그 매장에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사물인터넷(IoT), 무인결제(SCO) 등 첨단기술로 무장한 미래형 매장으로 진화할 것이란 예상이다.

유통업태별로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 전통 유

체널은 저성장 혹은 역신장을 기록하는데 반해 복합몰과 온라인몰은 소비 트렌드 변화로 고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AT커니 이철 상무는 "요즘 같은 저성장기에 있는 판매 활동에 투하되는 자원의 효율적이고 다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합리적으로 정당화하기 어려운 비용은 과감하게 걷어내는 전략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인앤드컴퍼니 송지혜 파트너는 "디지털 전환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유통업 구도의 재편 속도가 빨라지며 기업 인수·합병이 성장의 핵심 해법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디지털 역량 확보를 위해서는 O2O 파트너십 및 지분 투자 등 대안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오픈마켓 11번가는 지난달 26일 경기대학교에서 면접 스타일링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청년일일코디'를 진행했다.

www.dongsung-pharm.co.kr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을 뛰어넘는 내일을 생각합니다

Health from Nature – 동성제약

자연에서 찾은 건강과 아름다움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해온  
동성제약은 양귀비, 정로환, 세븐에이트 등 고객 여러분의 신뢰와  
사랑으로 60년 동안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빛을 이용한 광역학 치료분야 연구를  
미래성장동력으로 100년을 준비합니다. 동성제약은 대한민국 국민,  
더 나아가 세계인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동성제약주식회사

## “就準生 파이팅!” 면접 특급 도우미 떴다

〈취업준비생〉

11번가, 대학 방문 '청년일일코디' 진행  
면접 코치·메이크업·사진촬영 서비스  
KT&G, 면접의상 무료 대여 프로그램  
이랜드리테일·롯데百, 正裝 할인 행사

기 공채 면접 시즌을 맞아 면접 의상 무료 대여, 전문가 무료 컨설팅 등 취준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SK플래닛이 운영하는 오픈마켓 11번가는 취업 면접을 앞둔 대학생을 대상으로 면접 스타일링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청년일일코디'를 진행하고 있다. 메이크업·헤어스타일링, 사진 촬영, 면접용 구두 증정, 취업전문 컨설턴트의 자기소개서 첨삭 서비스 등을 통해 면접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을 돋는다.

지난달 26일 경기대학교에서 열린 행사는 130명의 학생이 참석해 면접 스타일링을 받았다. 사진 신청을 받아 선발된 110명에게는 20만 원 상당의 면접 구두가 증정됐다. 이달 중에는 서강대(8일), 광운대(16일), 국민대(22일) 등에서 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지현 SK플래닛 마케팅전략실장은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 취업난으로 힘들어하는 대학생들의 고민을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힘을 보탤 수 있어서 뿐듯했다"며 "장기 불황, 취업난 속에 지쳐가는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청년 응원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민정 기자 mj@

계획"이라고 밝혔다.

KT&G는 면접 의상 무료 대여 프로그램 '상상옷장'을 통해 취준생들을 지원한다. 지난해 9월 첫선을 보인 '상상옷장'은 대학교 내에 웃장과 피팅룸을 갖추고 면접용 의류 일체를 재학생들에게 빌려주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4곳을 추가해 현재 중북대와 종남대, 강원대, 경기대 등 수도권에 비해 취업여건이 열악한 지방 대학 총 12곳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학교마다 총 60벌(남성용 30벌, 여성용 30벌)의 정장이 마련돼 있으며, 면접용 의류는 코오롱FnC가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했다. 올해 9월까지 1년간 총 4136명, 월평균 345명에 달하는 이용 실적을 기록해 취준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외에도 이랜드리테일과 롯데백화점 등은 SAP 브랜드를 통해 가성비 높은 '직한 정장'을 선보이며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대 힘을 보탰다. 이랜드는 스파오 브랜드를 통해 상의 9만 원, 하의 3만 9000원의 슈트를 내놨다. 롯데백화점은 남성 정장 자체 브랜드(PB) 맨이슈트에서 한 벌에 9만 8000원짜리 남성 정장을 선보였다. 활동량이 많은 20대가 오랫동안 입을 수 있도록 울과 폴리에스터의 혼방 소재로 제작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유통사가 직접 제조사와 협업해 중간 마진을 없앴기 때문에 합리적 가격 정책이 가능했으며, 이 같은 정책을 가능한 한 오랜 기간 유지할 계획"이라며 "저렴한 가격 이상의 성능을 가진 다양한 정장 상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mj@

## 심한 日較差·미세먼지 공습... 피부를 지켜라

심한 일교차와 함께 미세먼지까지 등장하면서 환절기 피부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찬바람이 불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 피지 분비량이 줄어들고 각질이 생기기 쉽다. 피부가 탄력을 잃고 푸석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면 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다. 악해진 피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한번에 망가지는 건 불보듯 뻔하다. 이 때문에 환절기에 예민해진 피부를 관리하는 제품들이 주목받고 있다.

신세계인터내셔널 '비디비치'  
'세럼·마스크·립스틱' 피부 보습 3총사



신세계인터내셔널의 비디비치는 환절기 건조함을 없애 줄 수 있는 전문 라인을 출시했다. 낮과 밤의 사이클 동안 피부 보습을 최대로 유지해 줄 세럼과 마스크, 생기 있고 촉촉한 입술을 만들어 줄 립스틱으로 구성된다. 노화 방지 효과가 있으며 수분 지속 시간을 길게 유지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하이드라 인텐스 리바이탈라이징 세럼'(사진)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속 극한의 건조한 속에서도 살아남는 플랑크톤 추출물로 만들어 피부에 강력한 수분을 공급해 준다. 플랑크톤 추출물은 항산화와 디톡스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하이드라 인텐스 미네랄 테라피 멀티 마스크'는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인류 미래 식품으로 선정한 슈퍼푸드 '스프리리나'를 주 원료로 사용해 70여 종의 영양소가 함유돼 있다.

설화수 '자음생 마스크'

더블 랩핑 시트에 안티에이징 성분 담아

설화수의 '자음생 마스크'(사진)는 혁신적 더블 랩핑 시트에 자음생크림의 핵심 성분을 풍부하게

담아 집중적인 피부 개선에 도움을 주는 안티에이징 크리미 시트 마스크다. 더블 랩핑 시트는 안으로는 펫이 다른 밀착력과 편안함으로 피부를 캐어하고 밖으로는 피부를 꼼꼼히 감싸 텍스처의 피부 흡수를 돋는다. 또한 이중 구조 덕분에 내용물이 손에 쉽게 묻어나지 않아 편하고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실큰 '페이스에프액스'

진피층 콜라겐 재생 피부 탄력 도와



실큰의 '페이스에프액스'(사진)는 LED 레드라이트가 피부 진피층의 콜라겐을 재생해 피부 자체의 내성을 키우고, 세포 재생을 통해 팽팽하게 리프팅해 탄력을 되찾도록 돋는 안티에이징 케어 의료기기다. 콜라겐 세포 재생을 돋는 '레드라이트 테라피', 피부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프리셔널 열에너지' 기능을 갖춘 피부 탄력은 물론 주름 개선 효과까지 입증됐다. 세안 후 별 다른 스킨케어 없이 민얼굴에 바로 쓸 수 있는 1-스텝 트리트먼트로 눈가·입가·입술에도 사용할 수 있어 간편한 관리가 가능하다. 최근에는 남성 그루밍족들을 위한 페이스에프액스 블랙 리미티드 에디션을 출시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조남호 기자 spdran@

# 입주물량 넘치는 경기도…집값까지?

올 18.7만·내년 21.5만…최근 5년 평균보다 40% 많아  
화성·성남·오산 등 전세비율 줄고 전세가 하락 현실화  
문제는 앞으로…주택 공급과잉 집값 끌어내릴까 우려

내년까지 경기도 일대 입주 물량이 넘쳐나면서 곳곳에서 전세가 하락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도 떨어져나온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8일 IBK경제연구소와 업계 등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올해 18만7000가구, 내년 21만5000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는 최근 5년 평균인 11만5000가구보다 40% 가량 많은 수준이다.

향후 입주 물량을 기준할 수 있는 인허가 건수 역시 2015~2016년 평균이 37만5000가구로 과거 2005~2014년 평균(23만5000가구)보다 37.5% 많았다. 통상 인허가 건수는 2년 내외의 시기를 두고 입주 물량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에 소화를 못 한 물량은 그 다음 해로 이어지게 된다. 올해 1~9월 누적 인허가 물량은 45만4957가구로 5년 평균치보다 10.1% 많았다.

이 같은 공급 과잉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IBK경제연구소는 '2018 국내 주요산업 전망'에서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대책과 더불어 주택 공급 과잉이 부동산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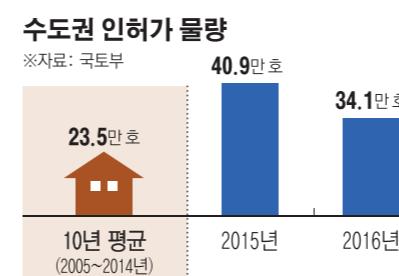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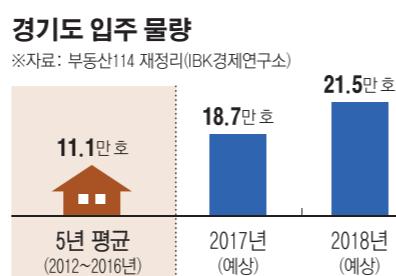
실제 위축의 징후는 전세가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경기도 전세가는 3일 기준으로 전주보다 광주(-0.18%), 시흥(-0.18%), 양주(-0.13%), 화성(-0.09%), 평택(-0.08%) 등이 하락했다.

화성은 올 들어 10월까지 아파트 입주량이 1만7653가구로 경기도 전체의 19.4%를 차지했다. 화성 인구가 경기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인구 비율이 약 5%

인 것과 비교하면 공급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화성은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전세비율)이 3월 79.2%에서 10월 말 75.3%까지 하락했다.

화성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동탄의 입주 물량이 많아 화성의 전세 수요자가 대거 빠져나갔다"며 "전세 가격은 작년보다 기준 아파트가 1000만 원, 신축 아파트는 2000만 원 정도 떨어지는 추세"라고 전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12월부터 내년 3월



까지 화성의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만937가구로 올 10월까지의 입주량보다 많다. 화성처럼 입주량이 많이 몰린 경기도 남부권의 성남과 오산 역시 최근 한 달 만에 전세 비율이 0.05%포인트 하락해 79.9%를 기록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세종이나 동탄도 입주 물량이 많아지며 전세 가격이 조정된 경우가 있다"며 "경기도는 올해 물량도 많은데 내년엔 더 많아지므로 화성, 용인, 김포, 시흥 등은 전세 가격이 계속 조정되는 흐름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택 공급 과잉이 전세가 하락에서 더 나아가 집값까지 끌어내릴 것이라 염려도 나타난다.

미분양수는 공급량에 비해 집값이 높은 경우 통상 증가하기에 집값 흐름을 예측하는 수치로 참고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5만4420가구로 전월 대비 2.4%(120가구)가 증가했다. 수도권은 1만311가구로 지난달보다 6.1% 늘었다.

미분양 주택은 3월 이후 8월까지 감소세였지만 8월 들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는 82 부동산대책 등 규제와 더불어 공급 물량이 갑작스레 늘어난 흐름과도 맞물린다. 경기도의 올 하반기(7~12월) 아파트 입주 물량은 9만4111가구로 상반기(1~6월) 입주 물량(3만 3749가구)의 세 배 조금 밀도는 숫자다.

실제 화성시의 경우는 82 대책 등 각

종 규제에서 벗어난 지역임에도 작년 10월부터 올 4월까지 아파트 매매가격이

5.3% 상승했다가 5월부터는 보합세다.

전문가는 주택 공급 과잉으로 단기적 인 집값 하락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기 지역에 주택 공급 과잉으로 집값 하락이 2~3년간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공급 물량에 따른 가격 하락은 보통 장기적으로 회복되는 흐름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세가가 먼저 떨어지고 회복되는 걸 매매가가 뒤쫓는 형국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신철 기자 camus16@

이신철 기자 camus16@

최고 입지  초고층  최대 규모

## 랜드마크 아파트 몰려온다

정부의 잇따른 규제 속에서도 분양시장 열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연말까지 규모나 상징성에서 지역을 대표할 만한 랜드마크 아파트가 대거 분양을 앞둔 눈길을 끈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 지역 내 최고 입지에 공급되는 단지부터 최고층, 최대 규모, 첫 민간 공급까지 다양한 아파트가 나올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랜드마크 아파트는 편리한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데다 지역 집값을 리딩해 향후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길 뉴타운의 중심 '힐스테이트 클래시안'

하남 감일지구 첫 민간 아파트 '포웰시티'

동탄2 호수공원 '레이크 자연& 푸르지오'

지역 내 상징성 갖춘 단지 대거 분양 앞둬

서초구 반포동의 대표 랜드마크 아파트인 '래미안 퍼스티지'가 대표적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래미안 퍼스티지의 3.3㎡당 평균 매입값은 4988만 원으로 서초구(3193만 원)과 반포동 평균(3463만 원)보다 높아 지역 내 집값 상승을 이끄는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수요가 풍부하고 경기불황에 따른 리스크가 적은 랜드마크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어 남은 분양시장에 서둘러 구매되고 있다.

우선 이진종합건설과 현대건설은 11월 중 부산 서구 송도 한진 매립지(암남동 123-15 일원)에서 첫 민간 아파트인 '현대 힐스테이트 이진베이시

티'를 분양한다. 하남 감일지구는 행정구역은 하남이지만 송파와 강동, 강남이 맞닿아 있어 강남생활권으로 평가받는 곳이다. 단지는 하남 감일지구 374블록(B6·C2·C3)에 2603가구(전용 73~152㎡) 규모로 조성된다.

이 밖에 경기도 시공사와 대우건설은 동탄2신도시 최고 입지로 꾹히는 동탄호수공원 앞 A86블록에 '동탄 레이크 자연& 푸르지오' 공급에 나섰고 호반건설과 중흥건설 컨소시엄은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8구역을 재개발한 '광주 그랜드센트럴' 공급에 나섰다. 광주광역시 최대 규모의 단지로, 총 236가구(조합원 포함) 중 1739가구(전용 59~119㎡)가 일반 분양된다.

구성현 기자 carlove@

## 立地 따라 喜悲 갈리는 광교

센트럴타운·에듀타운·호수마을 뛰는데  
신분당선 빠져간 웨빙타운 상대적 부진

수원 광교 신도시의 아파트 값이 내부 입지에 따라 희비가 갈리고 있다.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광교 신도시 아파트는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2기 신도시인 광교는 센트럴타운, 에듀타운, 호수마을, 웨빙타운 등으로 이름 붙인 구역으로 나뉘어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해 있다.

광교 지역에서 예고된 호재의 기대감이 반영된 센트럴타운의 아파트들은 대체로 매매가가 1억 원 가까이 상승했다. 이곳은 지난해 1월 신분당선의 정자·광교 구간이 연장 개통돼 많은 단지가 지하철 역세권이 된 데다, 2020년에는 경기도청의 신청사가 광교의 중심부에 새로 들어선다는 호재가 예정돼 있기도 하다.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광교 센트럴타운의 랜드마크 단지 역할을 하는 1970가구 규모의 '광교 센트럴타운 e편한세상 1차'의 전용 101㎡ 가구는 올해 초 5억4000만 원 안팎이었던 매매가가 최대 2000만 원 정도의 상승에 그쳐 광교 내 다른 단지들에 비하면 눈에 띄게 저조한 상승을 보였다.

하지만 광교 웨빙타운의 경우는 광교 내 다른 지구의 상승세에 비해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곳에 위치한 '광교호반베르디움'의 전용 84㎡ 가구는 올해 초 5억~5억3000만 원이던 시세가 지난달에도 여전히 같은 가격대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역시 인근의 '광교e편한세상 2차'의 경우 전용 84㎡의 가격이

돼 8억 원을 돌파했다. 역시 광교 에듀타운에서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광교 자연힐스테이트 54단지' 역시 5억 원 후반~6억 원까지 형성됐던 올 초 시세가 현재는 7억 원을 웃돌고 있다.

이 밖에 광교 호수마을의 '광교상록주리 레이크아파트'와 행정구역상으로는 용인시 수지구에 속했지만 역시 광교 호수마을로 분류되는 '광교 상록주리', '광교 경남아너스빌' 등의 단지들도 주택형과 단지별로 차이는 있지만 올 해 적게는 5000만 원 가량에서 많게는 1억 원에 유효한 매매가를 상승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광교 웨빙타운의 경우는 광교 내 다른 지구의 상승세에 비해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곳에 위치한 '광교호반베르디움'의 전용 84㎡ 가구는 올해 초 5억~5억3000만 원이던 시세가 지난달에도 여전히 같은 가격대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역시 인근의 '광교e편한세상 2차'의 경우 전용 84㎡의 가격이



광교 센트럴타운 e편한세상 1차. 올해 초 7억 원을 겨우 넘던 전용 101㎡ 시세가 1년이 안 돋아 8억 원을 돌파했다.

올해 초 5억4000만 원 안팎이었던 매매가가 최대 2000만 원 정도의 상승에 그쳐 광교 내 다른 단지들에 비하면 눈에 띄게 저조한 상승을 보였다.

이 같은 광교 웨빙타운의 상대적 부진의 원인으로 지역민과 업계 관계자들은 구석진 입지와 교육·교통 인프라의 미비 등을 지목하고 있다. 신분당선 정차역이 단지들이 밀집한 지구 한복판을 지나가는 다른 타운들과 달리 신분당선 광교역은 웨빙타운과 영동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남쪽으로 아예 치우쳐 있

김정웅 기자 cogito@

## 서울 아파트 '半전세' 거래 1년새 반토막

중구·종로구 제외 모두 감소… 전세 입주물량 늘면서 세입자 입김 세져

서울시의 아파트 반전세(준전세) 거래 건수가 1년 사이에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입주물량이 늘면서 세입자의 교섭력이 커진 데다, 재건축 진행으로 멀집기 가구가 증가한 것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시에서 거래된 아파트 준전세 거래는 1455건으로 전년 동기(2553건) 대비 4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세(20.8%↓), 월세(10.8%↓) 준월세(19.9%↓)의 감소폭보다 크다. 25개 자치구 중에

240배를 초과하는 월세를 의미한다. 준전세는 전세난 시기에 전세금 상승분을 세입자가 월세로 지급하면서 통용됐다. 저금리 기조에 목돈을 굽리기 어려운 집주인은 선호하는 반면, 세입자는 매달 월세를 내야 해 부담이 크다. 이에 준전세 거래량이 줄었다는 것은 세입자의 교섭력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세 물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면서 세입자가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입주물량이 본격적으로 줄어들면서 전세 물량이 넘쳐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반전세는 전세난의 후폭풍으로 생

114에 따르면 서울시의 올해(예정 포함) 와 내년 입주물량은 각각 2만6718가구, 3만4925가구로 추산되고 있다. 작년 2만 5887가구보다 1만 가구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전국 기준으로 내년 입주물량은 올해(예정 포함) 38만572가구보다 5만 가구 이상 증가한 44만999가구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29만3021가구와 비교했을 때 15만 가구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입주물량이 본격적으로 줄어들면서 전세 물량이 넘쳐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반전세는 전세난의 후폭풍으로 생

겨난 하나님의 사회적 현상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이해타산이 맞아서 생긴 것"이라며 "결국, 전세난은 잠잠해지고 세입자의 교섭력이 커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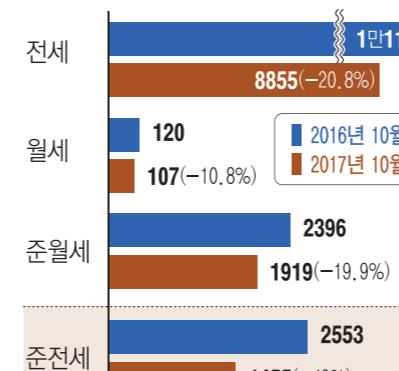
이 밖에 서울시 재건축 시행 역시 준전세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재건축으로 멀집기 가구가 증가하면서 거래가 줄었을 수 있다는 이유

서지희 기자 jhsseo@

##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 현황

(단위 : 거래건수, 광고는 증감률)

\*자료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 추천 경매물건

◇서울 중랑구 면목동 581 대원칸타빌 = 103동 15층 1502호가 경매에 나왔다. 2003년 4월 준공한 4개동 256가구 단지로 해당 건물은 19층 건물 중 15층이다. 전용면적은 102.6㎡, 방 4개 육실 2개에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녹색병원)이 단지에서 도보 7분 거리에 있으며, 물건 인근으로 면목7동 주민센터, 녹색병원, 힘풀리스, 용마포포공원 등이 인접해 있다. 교육시설로는 면목초등학교, 면목중학교, 면목고등학교 등이 있다.

◇최초감정가 4억800만 원에서 1회 유찰돼 이번 경매 최저매각가는 3억8560만 원이다. 입찰은 11월

# FT “머독, 자신의 미디어 帝國 해체 시작”

## ‘머독의 시대’ 끝났나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의 미디어 제국이 흔들리고 있다.

86세의 머독은 TV 방송국에서부터 할리우드 영화 스튜디오, 신문에 이르기까지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는 미디어 제국을 구축했다. 그러나 이번 주 머독의 21세기폭스가 스포츠와 뉴스 부문을 제외한 자산 대부분을 월트디즈니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는 소식이 흘러나오면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 머독의 시대가 끝나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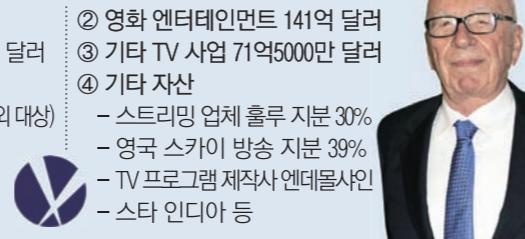
7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디즈니의 로버트 아이거 최고경영자(CEO)에 의해 이런 논의가 시작됐으며 현재 가격 등 계약 조건에서 이견을 숙지하지 못해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주목할 만한 것은 머독과 그의 두 아들 라클린, 제임스가 미디어 제국 핵심 중의 핵심인 21세기폭스를 매각 대상에 올려놓았다는 사실이다. FT는 머독이 수십 년간 구축했던 자신의 제국을 이제는 스스로 해제할 수 있는 과정을 시작했다며 경쟁사인 타임워너 인수 합병(M&A)과 같은 ‘빅딜(Big Deal)’이 없다면 해제가 정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머독의 미디어 제국이 이런 저지에 놓일 것이란 상상을 전혀 할 수 없었다. 머독은 다른 회사를 공격적으로 사들여면서 딩치를 키워왔으며 주위의 우려를 일축하고 과감하게 베팅하는 성향으로 유명했다. 그는 1996

21세기 폭스 주요 자산 가치	
① 케이블 방송망 총 392억 달러	② 영화 엔터테인먼트 141억 달러
- 폭스뉴스/폭스비즈니스 165억 달러 (매각 제외 대상)	③ 기타 TV 사업 71억 5000만 달러
- 폭스스포츠 105억 달러(매각 제외 대상)	④ 기타 자산
- FX네트워크 74억 달러	- 스트리밍업체 출루 지분 30%
- 내셔널지오그래픽 26억 달러	- 영국 스카이 방송 지분 39%
- FXX 21억 달러	- TV 프로그램 제작사 엔데몰사인
	- 스타 인디아 등

※출처: 파이낸셜타임스(FT)



## 핵심인 ‘21세기폭스’ 자산 대부분 디즈니에 매각 논의

### 6년前 정치인 도청 파문 시작으로 앵커 성추행 등 악재

### 넷플릭스에 콘텐츠 사업 밀려…‘엔터’보다 뉴스 집중 전략

년 미국에서 보수 언론의 대명사가 된 폭스뉴스를 설립했다. 당시만 해도 미국 미디어 업계는 진보적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모두가 머독의 실패를 점쳤으나 폭스뉴스는 미국 1위 시청률을 자랑하는 방송사로 성장했다.

머독은 2005년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의 시초로 일컬어지던 마이스페이스를 5억 8000만 달러(약 6458억 원)에 인수했으나 이는 실패로 끝났다. 이에 굴하지 않고 머독은 2년 후 50억 달러에 월스트리트저널(WSJ)로 유명한 디아웃존스를 사들였다.

그러나 불과 5년여 만에 악재가 잇따라 터지면서 머독의 입지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2011년 168년 역사를 자랑했던 머독 소유의 영국 일요판 신문 ‘뉴스오브더월드’가 폐간했다. 기자들이 경찰에게 뇌물로 혐의를 받았을 때는 머독은 경찰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정치인과 유명인사들을 해킹, 도청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

여기에 인터넷과 모바일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해 머독의 영향력이 치명타를 입었다.

머독은 상황 타개를 위해 2013년 자신의 미디어 제국인 뉴스코퍼레이션을 언론·출판·담당의 뉴스코프와 영화, TV 등 영상사업에 중심인 21세기폭스로 조\_REPEAT(2)었다. 2014년에는 21세기폭스와 타임워너 합병을 추진했으나 결국 실패로 끝났다.

이에 그는 2015년 차남인 제임스 머독을 21세기폭스의 최고경영자(CEO)로 끌어들여 사실상 후계자에게 경영권을 이양했다. 그러나 이후 상황은 더 악화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보수 언론의 대표인 폭스뉴스는

여론의 뜻을 맞았다. 그런 와중에 로저 에일스 전 회장과 간판 앵커 빌 오라일리 등이 성추행 파문으로 퇴진하면서 폭스뉴스의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했다.

결국 머독은 자신의 사업을 전면 재조정해야 할 시점에 오게 된 것이다.

더 나아가 전문가들은 넷플릭스와 아마존닷컴 등이 공격적 콘텐츠 확보로 디지털 경쟁의 선두에 서게 된 것이 21세기폭스가 디즈니와 매각 논의를 한 근본적 이유라고 지적했다. 넷플릭스 등은 스트리밍이라는 단단한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대량의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폭스의 간판사업을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다. 넷플릭스는 내년에 무려 80억 달러를 TV 드라마와 영화 등 자체 콘텐츠 제작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폭스는 넷플릭스와 아마존 등이 주도하는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경쟁에 뛰어들기보다는 자사가 현재 경쟁력을 보유한 뉴스와 스포츠 부문에 초점을 맞추는 선택과 집중 전략에 나섰다. 니드랜의 로라 마틴 애널리스트는 “디즈니로의 매각 추진 논의가 처음 공개된 전날 폭스 주가가 9% 폭등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장은 폭스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디즈니 산하로 들어가는 것에 더 낫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BTIG리서치의 리치 그린필드 애널리스트는 “소비자들이 인터넷으로 옮겨가는 역풍이 더 커지고 있다. 폭스가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유일한 방안은 매각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 크리스마스 조명 밝힌 런던



7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소핑가 옥스퍼드 스트리트에서 크리스마스 점등식이 열렸다. 1959년 시작해 올해로 58회를 맞은 크리스마스 점등은 연말 소핑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이기도 하다. 올해는 ‘크리스마스 마법’을 주제로 1778개의 장식과 75만 개의 LED 조명으로 거리를 꾸몄다.

# 사우디 ‘왕자의 날’…‘5성급 감옥’으로 전락한 리츠칼튼

## 트럼프·손정의 머물렀던 호텔

진짜 감옥 대신 왕자 11명 가둬  
숙청 대상이지만 계파 명예 고려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리츠칼튼 호텔이 세계에서 가장 호화로운 감옥이 됐다. 부패 혐의로 체포된 사우디 왕실 인사들이 리츠칼튼 호텔에 무더기로 구금되면서 5성급 호텔이 감옥 역할을 대신하게 된 것이다.

4일(현지시간) 사우디 왕위 계승 서열 1위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자신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고자 ‘중동의 위령 버핏’으로 불리는 알 월리드 빙 탈랄 왕자를 포함해 11명의 왕자, 4명의 현직 장관 등 60여 명을 부패 혐의로 체포했다. 사우디 당국은 그날 밤 리야드 리츠칼튼 호텔의 모든 투숙객을內보내고 체포한 이들을 호텔에 구금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우디 당국자 두 명을 통해 리츠칼튼 호텔 구금 사



리야드 리츠칼튼 호텔 전경.

홈페이지 캡처

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왕국 역사상 최고위 수감자”라며 “지위가 높은 사람은 범죄 혐의에도 강력한 권한을 유지한다는 걸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현재 리야드 리츠칼튼 호텔의 492개 객실은 이달 말까지 온라인 예약이 불가능하다. 호텔 홈페이지에는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호텔의 인터넷 및 전화 회선 연결이 끊어 있다는 안내문이 올라왔다. CNN은 호텔 소유주인 메리어트가 현 상황에 대한 성명을 내놓지 않았으며 리츠칼튼 마케팅 관계자는 다음 달 1일부터 예약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우디 왕국

은 압둘 아지즈 알 사우드 초대 국왕의 후손인 왕실 계파들의 합의로 통치하고 있다. 사우디 지도자들은 가족 구성원에 왕실 권력의 일부를 나눠 주고 대신 충성심을 확보해왔다. 만약 그들 중 누군가를 감옥에 가둔다면 이들의 연결고리가 끊기게 된다. 역사적으로 부족 국가를 기반으로 한 사우디에서는 족장이나 고위 인사의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감옥 구금과 같은 모욕은 더욱 받아들여진다고 가디언은 설명했다. 사우디 고위 관료는 “리츠칼튼 호텔에 구금하는 방법은 가장 위엄 있는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압둘 칼리 압둘라 전 에미레이트대학 정치학 교수는 “사우디의 사회적 규범이 깨지고 전통적으로 종족과 혈족을 묶은 관계가 더 강하지 않다”며 “모두를 똑같이 대하는 문화적 준비 상태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왕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들은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혜 기자 winjh@

# 亞 최고 부자인 형 때문에… 인도 통신재벌 디폴트 위기

## 사용자 7500만명의 ‘릴라이언스’

친王爷 세운 이통사 저가 공세에

부채, 현금 자산의 100배 눈덩이



인도에서 7500만 명의 사용자를 자랑하는 통신 재벌 릴라이언스커뮤니케이션스(이하 릴라이언스)가 사상 첫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내몰렸다. 업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릴라이언스를 이끄는 암바니 가문의 형제간 경쟁이 위기를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릴라이언스는 6일(현지시간) 채권 이자 975만 달러(약 108억 원) 지급에 실패했다. 해당 이자는 2015년 5월 발행한 5.5년 만기의 3억 달러 규모 회사채에 대한 것으로, 연간 금리는 6.5% 수준이다. 릴라이언스는 유예기간 7일 이내에 이자 지급을 하지 못하면 디폴트를 내게 된다.

릴라이언스는 성명에서 “제무 재조정의 일환으로 내년 12월까지 채무 상환 유예 기간을 잡아 놓았다”며 “이에 따라 당분간 은행과 채권 소유자들에게 대한 원금과 이자 상환이 중지된다. 그러나 우리는 계획된 자산 매각을 통해 빚을 갚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BTIG리서치의 리치 그린필드 애널리스트는 “소비자들이 인터넷으로 옮겨가는 역풍이 더 커지고 있다. 폭스가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유일한 방안은 매각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릴라이언스는 인도 최대 부호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암바니가 이끌고 있다. 암바니의 재산은 31억 5000만 달러에 이르지만 갑수록 경쟁이 격화되는 인도 시장에서는 그의 재력도 속수무책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릴라이언스를 흑독한 경쟁으로 몰아넣은 것이 아닐 암바니의 형인 무케시 암바니라는 것이다. 무케시는 얼마 전 중국 헝다그룹 쉬자인 회장을 제치고 아시아 최고 부호에 등극했다. 그는 정유사업에서 나오는 풍부한 자금을 무기로 공격적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줌인 아시아

조코위 정권 3주년

# 인도네시아 멀어지는 ‘土木공화국’ 꿈

발전소 등 인프라 건설 돈줄 바닥  
자국기업도 투자 꺼려 성장 악재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대통령 취임 3년을 맞은 인도네시아가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개발이 더뎌지면서 경제성장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최근 전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수마트라섬을 남북으로 잇는 2300㎞ 고속도로 개통식에 참석했다. 인도네시아는 인프라 구축으로 물류가 원활해지고 관광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취임 3주년을 맞은 조코위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인프라 구축을 공약했다. 지역 간 격차 해소에도 노력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조코위 대통령이 지방을 돌아보느라 일주일에 2~3일만 카르타타에 머물 정도”라고 설명했다. 지역 개발을 중시하는 조코위 정부는 수도 자카르타가 있는 자바섬을 중심으로 개발해온 역대 정권과 차이가 두드러진다.

인프라 건설이 늦어지면서 경제성장도 기대를 밟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률은 5%대로 주요 20개국(G20) 중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기대보다는 낮다. 정권 출범 당시 조코위 대통령은 7% 성장을 목표로 했다. 올해 성장률도 5.4%가 목표다. 그러나 실제 경제 성장률은 5%에 머물고 있다.

이주혜 기자 winjh@

# “국내외서 혁신적 ‘핀테크’ 사업모델 구축”

## SBI 투자 유치한 신승현 데일리금융그룹 대표

“혁신적 기술과 서비스로 고객의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금융을 제공하기 위해 한발 더 다가서겠습니다.”

쿼터백자산운용으로 유명한 데일리금융그룹의 신승현 대표는 7일 일본 자본시장의 큰손 SBI인베스트먼트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무려 세 번째 투자로 SBI그룹의 신뢰와 기대감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일상 풍요로워지는 금융’이라는 비전은 신승현 대표가 박상영 현 고문과 2015년 2월 회사 창업 초기부터 입버릇처럼 강조해 온 경영 방침이다. 이를 기반으로 경영전략을 짜고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로보어드바이저, 암호화폐 등 다양한 신개념 핀테크 서비스를 불과 3년여 만에 성공적으로 론칭했다.

이번 투자자금은 SBI인베스트먼트

### AI·블록체인 등 핀테크 서비스 거침없는 리더십으로 해외 진출

가 조성한 3000억 원 규모의 핀테크 펀드를 통해 조달된다. 이 펀드에는 일본 지방 금융기관 28곳과 미즈호 은행, 소프트뱅크가 유한책임투자자(LP)로 참여하고 있다. 다만, 계약상 구체적인 투자 조건과 금액에 대해선 함구했다. 지난해 1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투자받은 자금은 총 1067억 원이다.

특히 데일리금융그룹 내 다양한 자회사들의 핀테크 역량이 이번 투자 유치에도 주요하게 작용했다. 중간지주사 이자 핵심 자회사인 쿼터백자산운용은 사모펀드 전문운용사로 한국 로보어드바이저 부문 최대 규모의 운용자산(AUM)을 보유하고 있다. 데일리인텔리

전스의 경우 고도화된 블록체인 기술을 앞세워 증권업계의 블록체인 컨소시엄에 기술 협력사로 참여하고 있다.

이 외에도 데일리금융그룹은 통합 가상화폐거래소(코인원), 해외송금(크로스), 주식형 로보어드바이저(뉴지스틱), 디지털 보험 매니저(레몬클립), 간편결제(페이앱), 자산관리(브로콜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회사들을 산하에 두고 있다.

회사의 거침없는 해외 진출에는 신승현 대표의 리더십이 주효했던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신 대표는 삼일회계법인 금융본부와 영국 타워스왓슨 보험금융 사업부에서 근무했으며, 금융업 애널리스트로 활약하다가 데일리금융그룹을 출범시켰다. “한국 핀테크 대표 기업으로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심한 포부를 밝힌 신 대표의 다음 행보가 주목된다. 차민경 기자 blooming@



데일리금융그룹의 신승현 대표는 “한국 핀테크 대표 기업으로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심한 포부를 밝혔다.

사진제공 데일리금융그룹

##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 김도형 연세대 교수 선임



동북아역사재단은 김도형(사진) 연세대 사학과 교수가 제5대 이사장에 선임됐다고 7일 밝혔다. 임기는 3년.

김 신임 이사장은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근현대사 전공 역사학자다. 2000년부터 연세대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한국사연구단체협의회 회장과 한국사연구회 회장,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위원, 동북아역사재단 자문위원장을 지냈다.

조성준 기자 tatio@

## 배정혜 ‘아름다운 무용인상’



‘제5회 아름다운 무용인상’ 수상자로 배정혜(사진) 한국 무용가가 선정됐다.

전문무용수지원센터는 7일 “배정혜 선생은 한국 창작춤의 건축가로 불리며 50여 년간 한국 창작무용을 개척해왔다”며 “1970년 이후 전통춤의 재창작 작업을 시작한 이후 한국 창작춤의 새 지평을 열어왔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센터는 한국 무용계 발전에 크게 기여한 무용인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2013년 ‘아름다운 무용인상’을 제정했다. 그간 김매자 창무예술원 이사장, 박금자 성암아트홀 이사장, 육완순 한국현대무용진흥회 이사장, 김화숙 원광대 무용과 명예교수가 이 상을 받았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 신동빈 회장 인도네시아 출국… 東南亞시장 점검

〈롯데그룹〉

### 마트·백화점 사업장 둘러보고 제휴 살림 회장 만나 협력 논의



신동빈(사진) 롯데그룹 회장이 인도네시아를 찾아 현지 시장 점검에 나선다.

7일 롯데에 따르면 신 회장은 2박 3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 사업장을 둘러보기 위해 이날 출국했다. 이번 인도네시아 출장에는 황각규 롯데지주 공동대표와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가 동행했다. 강희태 롯데백화점 대표는 8일 출국해 인도네시아 일정에 합류한다.

롯데는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마트 45개 점포와 백화점 1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내달에는 람평 지역에 46번째 점포를 오픈할 계획이다. 롯데리아는 30개

점, 엔제리너스 3개점, 롯데면세점 2개점(공항점, 시내점)이 현지에서 영업 중이다.

신 회장은 이번 출장기간 동안 제휴 관계인 앤씨니 살림 살림그룹 회장과 만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 회장은 2013년부터 ‘한-인도네시아 동반자 협의회’의 경제계 의장을 맡으며 롯데의 인도네시아 진출에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롯데가 베트남과 함께

동남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고 있는

핵심 지역이다. 인도네시아는 2억60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세계 4위 인구 대국이다. 39세 이하 젊은층이 전체 인구의 61.4%를 차지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5.3%에 불과해 성장 가능성이 큰 국가로 꼽힌다.

지난해 롯데의 해외 매출 약 12조 원 가운데 인도네시아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5%로 중국과 말레이시아 다음으로 높다.

롯데 관계자는 “신 회장이 인도네시아 출장 기간에 마트와 백화점 등 현지 사업장을 둘러보고 사업 확대 가능성 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며 “12월 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지만 훈들리지 않고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atio@

## 시인 서효인·소설가 손보미 ‘대산문학상’ 수상

### 희곡 장우재 작가, 번역 오록 교수



대산문화재단은 제25회 대산문학상 수상작으로 시 부문에 서효인(36) 시인의 ‘여수’, 소설 부문에 손보미(37) 작가의 ‘디어 랄프 로렌’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희곡 부문은 장우재(46) 작가의 ‘불역쾌재’, 번역 부문은 경희대 명예교수인 캐빈 오록(78)의 영역작 ‘한국시선집 : 조선시대’(The Book of Korean Poetry : CHOSUN DYNASTY)가 수상했다.

십자위원회는 시 부문 ‘여수’를 “이 땅의 여러 장소에 대한 애정과 연민이 돋보이고 상투적 현실 인식에 안주하지 않는 풍성한 발견과 성찰을 보여준다”고 평했다.

소설 ‘디어 랄프 로렌’은 “다국적 소비문화의 영향 아래 자기 인식의 언어를 배운 젊은 세대가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과정을 서사적 상상의 발달함으로 표현했다”고 평했다.

‘불역쾌재’는 “여자적 소재에서 취한 이야기 전개가 흥미롭고 변두리적인 자선만의 시각을 우직하게 밀고 나가 오늘

의 희곡 세계에서 독자적인 문제를 구축했다”는 평을, ‘한국시선집 : 조선시대’는 “한국의 절과 문학성을 살린 가독성 높은 번역이자 한국문화, 역사, 한국시를 이해하려 노력한 해외 연구자의 의미 있는 결과물”이라는 평을 받았다.

시·소설·희곡 수상작은 내년도 번역 지원 공모를 통해 주요 언어로 번역돼 해외에 소개된다. 상금은 부문별 5000만 원이며 시상식은 27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 부음

▲신진철(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지원부 팀장)·연철(사업)씨 부진상 = 7일, 전북 남원장례식장, 발인 9일 오전 8시, 063-635-4456

▲김재완(덕성여대 약대 명예교수)씨 별세, 두희(사업)·미선(한국체육대 강

사)·미란(한국체육대 강사)·미정(서울 아산병원 치과 의사)씨 부진상, 이재현(총북대 녹색ICT센터장)·한정희(한치과의원 원장)·김대경(치과의사)·신익순(신익순한의원 원장)씨 장인상 = 7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9일 오전 9시, 02-3010-2295

▲김원형(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수

석코치)씨 장인상 = 7일, 영남대의료원, 발인 9일 오전 7시, 053-620-4231

▲임동욱(한국씨티에스 대표)씨 장모상 = 7일, 전주 예수병원, 발인 9일 오전 9시, 063-285-1009

▲박준용(김영우 국회의원 보좌관)씨 부진상 = 7일, 양산장례식장, 발인 9일 오전 8시 30분, 055-366-4440

## 한국여성 인물사전

〈230〉 수원권씨(脩媛 權氏)

### 비구니로 현강왕의 명복을 빙 후궁

수원 권씨(脩媛 權氏)는 신라 49대 현강왕(憲康王, 재위 875~886)의 후궁으로, 법호(法號)는 수원(秀圓)이다.

후궁의 품계 중 하나인 수원(脩媛)은 정2품에 해당된다. 그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 ‘삼국유사’에는 없다. 9세기 중후반에 최치원이 친(撰)했다고 알려진 ‘불국사고금장기(佛國寺古今藏記)’를 비롯한 불국사 관련 자료 중 ‘화암불국사비로자나불문수보현보살상장병서(華嚴佛國寺毘盧舍那佛文殊普賢菩薩像讚并序)’에 보인다. 불국사에 비로자나불과 문수보현보살상을 바친 것을 기록한 문서이다.

그 기록에 따르면 수원 권씨는 현강왕 사후 명복을 빙기 위해 [追福] 비구니가 되어 불국사에 머물렀다.

불국사 광학장(光學藏)의 강실 왼쪽 벽에 그린 불상은 수원 권씨가 명복을 추봉하기 위해 모신 것이다. 호두묘수(虎頭妙手), 즉 중국 동진(東晉)의 고개지(顧恺之, 344~466년경)처럼 뛰어난 화가를 불러 그린 불상으로, 부처님의 좌우에 보살이 균형하게 들어서 있고 가림은 서로에게 빛나는 형세였다. 부처의 화상이 어찌나 아름다운 글로는 영연할 수 없다고 하였다.

수원 권씨가 현강왕을 위해 부처의 상을 그리게 했고, 그 후에 최치원이 친하였다. 최치원이 친한 시점은 ‘광계정미년 1월 8일[光啓丁未正月八日]’로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 신라 50대 정강왕(定康王, 재위 886~887) 2년인 887년에 해당한다. ‘삼국사기’ 본기에서는 현강왕이 죽

은 해를 886년 또는 887년이라고 기록하였다.

위의 문건에서는 현강왕이 죽은 이후 당으로부터 추증된 ‘증태부(贈太傅)’라는 칭호가 보이므로 887년 이후에 친이 써어졌다고 보는 게 합당할 것이다. 이에 최치원이 두 번째로 입당(入唐)한 시기인 신라 51대 진성여왕(眞聖女王, 재위 887~897) 7년(893) 이후 쓰였다고 보기도 한다. 수원 권씨가 바친 부처상은 비로자나불(悉曇陀那佛)로, 노사나(盧舍那) 또는 대일여래(大日如來)라고도 하는데, 두루 빛을 비추는 존재라는 뜻이다. 형상이 없고 어느 곳이나 존재하며 일체중생을 보호하여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정정법신(靜淨法身)이라고 한다.

불국사에는 국보 제26호인 금동비로자나불(金銅毘盧舍那佛)이 있다. 조각 양식의 특성으로 보아 9세기 중후반에 만든 것으로 여겨진다고 한다. 이에 수원 권씨가 상찬한 비로자나불이 불국사의 금동비로자나불이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최치원 전에 의하면 수원 권씨가 조성한 부처상은 금동불이 아니라 불화인 것을 알 수 있다.

왕이 죽은 이후 비빈(妃嬪)들의 삶은 어떠했까. 수원 권씨는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어 절에서 거주하며 명복을 빙는 일을 업으로 삼았다. 왕의 죽음과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이는 그에게 또 다른 삶의 의미가 되었을 것이다.

이현주 고대사 전공자, 성균관대·아주대 강사

‘이투데이 역사·여성·미래 여성사박물관립추진협의회’



마원(왼쪽에서 3번째) 알리바바그룹 출연한 태극권 영화 ‘공수도(攻守道·The Art of Attack and Defence)’ 포스터.

### 태극권 영화 출연 이어 가수 데뷔까지… 버킷리스트 실행하는 마원 회장

〈알리바바〉

#### 영화·노래, 광군제 맞춰 공개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 그룹의 마원 회장이 ‘버킷 리스트(죽기 전에 이루고 싶은 소원 목록)’를 차실히 실행에 옮기고 있다.

마 회장은 태극권 영화에 배우로 출연하는 것은 물론 가수로 데뷔까지 하면서 자신의 오랜 소원을 성취했다고 6일(현지시간) 미국 CNBC방송이 소개했다.

마 회장은 중국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웨이보에 지난 3일 홍콩 유명 가수 왕페이와 함께 녹음한 노래 파일을 링크로 올렸다. 노래 제목은 ‘평정양(風清揚·풍정양)’으로, 진옹(김용)의 무협지 ‘소호강호’의 등장인물이다. 마 회장은 평소 직원들에게 자신을 평정양으로 불러달라고 할 정도로 무협지를 좋아한다.

이 노래는 세계 최대 쇼핑 축제인 11일 ‘광군제(독신자의 날)’에 맞춰 공개될 편. 영화 ‘공수도(攻守道·The Art of Attack and Defence)’의 주제가로도 쓰인다. 중국 네이션들은 마 회장의 노래가 영화 주제곡에서 빠져야 한다고 혹

배준호 기자 baejh94@

## 정책발언대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신율의  
정치편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타이레놀 위기에서 배우는 '신뢰'

1982년 미국 시카고 교외의 한 마을에서 청간가리가 든 타이레놀을 복용한 7명이 잇따라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사 결과, 누군가 약국 등에 진열된 타이레놀에 몰래 청간가리를 투입한 것으로 밝혀졌고, 미국 식품의약국은 시카고 지역에 배포된 타이레놀의 회수를 권고했다. 단순한 리콜로 끝날 뻔한 이 사건은, 제조사가 취한 그 이상의 조치로 인해 주목받게 되었다.

제조사는 병원·약국과 광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고 사실을 알리고, 1억 달러 상당의 타이레놀 유통량 전체를 회수하였다. 또한, 아예 이물질이 들어갈 수 없는 새로운 포장지를 개발하여 재출시하였다. 이러한 노력 끝에 35%에서 7%로 급락했던 시장점유율은 원래 상태를 되찾게 되었다.

'윤리 경영'의 사례로 잘 알려진 이 일화는,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자리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신뢰가 기업의 흥망성쇠를 결정한다는 것 또한 말해주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도 비슷한 신뢰 위기를 겪고 있다. 9월 28일 위원 면담 과정 기록 의무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사적 접촉 금지 등 '공정위 신뢰 제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였음에도, 퇴직자나 대형 로펌 변호사의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대해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사건 처리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공정위 신뢰 회복 프로그램이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되게 하기 위해선 공정위를 출입·접촉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윤리에 맞지 않는 행동을 스스로 하지 않는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정위가 정부 기관 최초로 추진하기로 한 것이 바로 '외부인 출

입·접촉 관리 강화 및 윤리 준칙 도입'이다.

우선 빈번한 방문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대형 로펌 변호사, 대기업 임직원, 공정위 퇴직자 등은 인적사항 등을 등록한 후 공정위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등록 대상 외부인은 조사 정보 입수 시도와 같이 비밀 염수와 관련한 준수 사항, 사건 관련 부정한 정탁 금지 등 윤리 준칙(code of ethics)을 준수해야 한다. 공정위 직원들도 등록된 자와 사무실 내·외부에서 만나거나 전화·SNS 등을 통해 접촉할 경우 상세 내역을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러한 방안들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등록요건에 해당됨에도 등록하지 않는 외부인과는 사건 절차규칙상 인정되는 전원회의 참석 및 진술조사 외 모든 접촉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윤리 준칙을 준수하지 않은 자의 경우 공정위 직원·간부로 하여금 1년간 모든 접촉을 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신뢰를 잃은 기업은 매출이 떨어지고, 어쩌면 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다. 정부 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면 존폐의 위기를 맞아 기관이 추구하는 가치 자체가 물각될 수 있다. 공정위가 다소 엄격해 보일 수 있는 강도 높은 신뢰 회복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즉,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행위의 음성화와 규제 강화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우리 사회의 미래 발전 방향을 공정위가 한발 앞서 실천해 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올해 안에 세부 절차를 담은 공정위 예규를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출발점으로 우리 사회가 투명한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희망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주 금요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黜黨)을 결정했다. 과거에도 우리는 대통령에 대한 탈당 조치를 수없이 봤다. 그것은 마치 우리 현대사의 법칙 같았다. 이런 현상은 대통령이 될 때, 혹은 되고 난 직후 여당은 대통령의 허나문 인기의 덕을 톡톡히 보지만, 시간이 흐르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토막 나기 시작하면, 여당은 대통령을 짐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드러내놓고 출당을 시켰다. 학교로 치면 자퇴가 아니라 퇴학 처분을 받은 것이다. 이런 처분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다. 물론 이런 조치를 취한 배경에는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보수층이

## 박근혜 黜黨과 보수 統合

결집하지 못하고 아예 숨어버렸다는 현실이 작용했을 것이다. 또한 바른정당의 통합파는 박 전 대통령의 출당을 자신들의 정치적 거취 결정의 신호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또 다른 이유로 지지율을 들 수 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나 바른정당의 지지율은 거기서 거기란 말이 나올 정도로 지지부진하다. 이런 경우 역시 매우 드문 일인데, 국회의원 숫자가 당 지지율에 별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경험하는 정치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니, 홍준표 대표로선 서두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결국 이런 상황들로 인해 박 전 대통령은 출당됐고, 그래서 이제부터의 관심사는 '출당 조치가 과연 원하는 효과를 불러올까?'이다. 우선 지지율부터 생각해 보자. 개인적인 견해로는 약간의 지지율 상승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대구·경북 지

역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로 지지층 이반 현상이 나타나겠지만, 그 대신 수도권에 있는 보수층은 다시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홍준표 대표는 최소한의 체면치레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출당 조치로 홍준표 대표가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이점은, 바로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론의 명예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는 그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일정 기간 정계를 떠나 있었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는 대선이 끝난 후, 다른 대선 후보보다 빨리 정계에 복귀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본인이 마땅히 져야 할 대선 패배의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를 강행함으로써, 대선 패배의 궁극적 책임은 박 전 대통령에게 있음을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는 거꾸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선 책임론에서

자유로워졌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출당 효과는 여기까지일 수 있다. 즉, 자유한국당이 몸을 던지는 혁신을 하지 않으면, 지지율 상승과 같은 효과는 일회성으로 끝날 위험이 있고 오히려 내분이 일어나 긍정적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새롭다'는 이미지다. 혁신 과정에서는 인적 정산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새롭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이미지 개선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선 이게 쉬워 보이지 않는다. 새롭다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는 참신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느낌이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에는 새로운 과제가 던져진 셈이다. 만일 여기서 실패한다면, 집도끼도 놓치고 산토끼도 놓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도전은 이제부터라는 생각이다. 제발 해답을 내놓는 모습을 보고 싶다.

알쏭  
달쏭  
語 思

## 상엽홍어이월화(霜葉紅於二月花)

상엽홍어이월화(霜葉紅於二月花)! '서리'성: '잎사귀 암', '붉은 호', '여조사 암', '둘 이', '달 월', '꽃 화로', '서리 맞은 잎사귀가 2월의 꽃보다 더붉다'는 뜻이다. 중국 당나라 시인 두목(杜牧)의 '산행(山行)'이라는 시 마지막 구절이다. '여조사 어리고 훈독하는 '於'는 대부분 저소격 조사로서 '에' 혹은 '에서'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글자인데 여기서는 비교급 조사로 '보다(than)'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2월은 당연히 음력이므로 양력으로는 3월에 해당한다. 새봄의 꽃이 붉게 피어날 때이다. 새봄에 젊음으로 피어나는 꽃만 붉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서리를 맞은 단풍잎도 꽃 뜨지 않게 붉고 아름답다.

붉게 타는 단풍을 보면서 노인은 노인대로 노년을 단풍처럼 붉게 물들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단풍을 아끼듯이 노인을 무시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일사능광변소년(一事能狂便少年)'이라는 말이 있다. "한 가지 일에 미칠 수 있으면 그에 바로 소년"이라

는 뜻이다. 노인이라고 체념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한 가지 일에 미친 듯 정열을 쏟는다면 젊은이 뜻지 않은 능력을 발휘하여 더 큰 인생의 성취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70대 노인이라도 지금 서예를 시작하면 서예가가 될 수 있고, 그림을 시작하면 화가가 될 수 있으며, 기타를 시작하면 기타리스

트가 될 수 있다는 꿈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노인에게도 자신들처럼 젊은 시절이 있었다는 점을 망각하지 않음으로써 공경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 기울, 붉게 타는 단풍을 보면서 봄, 여름 내내 충전하는 기상으로 잎과 꽃을 피우다가 이제는 떠날 채비를 하며 마지막으로 자신의 몸을 꽂보다도 더붉게 태우는 단풍의 속삭임과 유언에 귀를 기울여보라. 그러면 노인의 경험과 타이르는 말에도 귀 기울 이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 온라인 모저모

## 1박2일 한국에 머문 트럼프 "文정부 외교의 성과" "펴주기 외교 아니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내외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7일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했다.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1992년 조지 H.W. 부시 대통령 이후 25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18분께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을 타고 경기 오산 미공군기지에 도착해 1박 2일의 일정을 소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기 평택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맞이했다. 양국 대통령은 한미연합사 소속 한미 장병과 접점을 함께하고 한미동맹에 기여하는 노고를 치하했다.

오후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

미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동맹 강화 등과 관련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압도적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함께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며 "한국의 미사일 탄두 종량 제한도 완전히 해제하는데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자유롭고 공정하며 균형적인 무역의 혜택을 누리고자 관련 협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범세계적 도전 과제인 태러리즘, 여성 인권, 보건 등에 대한 것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네이션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에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트위터 아이디 '@OnePun\*\*\*\*'은 "전략자산 한반도 배치, 탄도 중량 해제, '코리아페싱' 없다는 말까지 아끌어냈으나 문재인 정부의 대단한 성과지"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트위터 아이디 '@rnfm\*\*\*\*'은 "청와대 만찬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초청한 건 신의 한 수였다. 특히 이 할머니가 트럼프와 포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본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기대되더라고 했다."

반면 네이버 아이디 'zeta\*\*\*\*'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즈니스하는 것 눈에 다 보이더라. 다소 미국에 펴주기식 외교를 하는 모습에 마음이 불편했다"라며 불편한 심경을 보였다. 이재영 기자 ljjy0403@

낳아주신 은혜에  
비할 순 없지만...

월화수목금토일 치과에서 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 월화수목금토일 치과에 예약했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치과

T.032-514-0028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382 (부평동, 대현빌딩 7,8층)



# 조직위 財政부문 전방위 지원…‘世界의 광고판’ 弘報 효과



##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금고지기’ KEB하나銀

111억 후원하며 공식스폰서 획득…2020년까지 대한체육회 등 재정 관리 조직위 엠블럼 등 지식재산권 사용 및 스폰서 표기 노출권 등 독점 올림픽 금융상품 출시…올림픽 사업 中企에 2100억 규모 우대보증 지원도



4년을 주기로 열리는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축제. TV 중계를 통해 180개국, 50억 명의 시선에 기업 브랜드를 선전할 수 있는 절대 놓칠 수 없는 마케팅 호기다. 더구나 평창은 국내 최초로 열리는 동계올림픽이다.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맞이하는 진객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이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융계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KEB하나은행, 111억 원에 따낸 공식 후원 은행 = 은행권에서 평창올림픽 마케팅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KEB하나은행이다. 하나은행은 4월 111억 원을 후원하며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스폰서 지위를 얻었다. 이번 낙찰 금액은 당초 조직위원회가 전망한 150억 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정부의 후원 압박이 줄면서 주거래은행 낙찰금액 부담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평창동계올림픽 후원 부담을 안고 있던 하나은행 입장에서는 반사이익을 얻은 셈이다.

앞으로 조직위원회의 운영자금 관리와 입장권 판매대금 수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0년까지 조직위의 모든 재정(수신·여신·외화·송금거래 등) 부문을 담당하는 금고은행이 된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재정 부문까지 담당하는 독점적인 권리도 갖게 된다.

또한 2020년까지 조직위의 엠블럼 등 휘장 사용과 관련된 모든 지식재산권과 마케팅 프로모션권, 온오프라인상의 스폰서표기 노출권, 개폐막식 구매권이나 숙박 교통권 지원 등까지 독점적으로 제공받는다.

하나은행은 이번 동계올림픽 공식 후원은행으로 선정되기 이전부터 스포츠 마케팅 분야에서 내공을 쌓아왔다. 대한축구협회와도 20년째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프로축구 FA컵 대회, FC서울 공식 후원뿐만 아니라 AFC(아시아축구연맹), FIFA(국제축구연맹) A매치 등 전 경기의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다.

◇공식 후원사 올림픽 전용상품 잇따라 출시 = 하나은행은 올림픽 개막 D-100일인 1일부터 행사가 끝나는 2018년 2월까지 올림픽 전용 상품을 판매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하나된 평창 정기예금’은 기본금리 연 1.718%에 우대금리 연 0.5%를 더해 11월 1일 세전기준으로 최대 연 2.218%의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대한민국이 종합순위 4위 이내를 달성하면 연 0.2%의 우대금리를 얹어준다. ‘하나된 평창 적금’은 금리는 기본금리 연 1.7%에 우대금리 연 0.8%가 더해져 최대 연 2.5%까지 가능하다.

특히 은행가래 실적에 따라 수수료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출금 통장으로 판매 기간 중 가입 계좌의 연평균잔액 0.1%를 올림픽·체육 관련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 특히 올림픽·체육 관계자 등에게는 가입 후 1년간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조건 없이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하나은행은 중소기업과 선수단 지원에도 나섰다. 9월 하나은행은 기술보증기금·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해 올림픽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에 특별출연 협약보증과 보증료 지원 협약을 통해 총 2100억 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앞서 10월 평창 동계올림픽 루지 경기장을 방문해 루지 국가대표 선수단을 격려하고 2억5000만 원의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하나금융은 2012년부터 비인기 동계스포츠 종목인 대한루지연맹을 후원해왔다.

◇스포츠 마케팅, 브랜드 이미지 제고 기여 = 하나은행은 기념은행권·기념주화·기념화폐의 예약 접수도 받고 있다. 동계올림픽 기념은행권과 기념주화 2차분 발행에 대한 공식 예약 접수처로도 참여했다. 기념은행권은 날장형, 2장 연결형, 24장 전지형 3가지이며 기념주화는 금, 은, 활동화로 디자인돼 있다.

하나은행은 2000원권 지폐에 대한 예약접수도 진행 중이다. 평창올림픽 기념지폐는 17일 한국은행에서 230만 장 규모로 발행하며 9월부터 예약 접수를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국제 스포츠 대회나 선수에 후원하는 스포츠 마케팅은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큰 홍보 효과를 불러온다”며 “동시에 스포츠 후원은 마케팅 수단에서 나아가 고객들에게 사회공헌의 의미로도 인식된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스포츠 마케팅팀 관계자는 “물적 후원을 이어나갈 뿐만 아니라 올림픽 기간에 출장소 4곳을 설치할 예정”이라며 “현장에서 선수들과 이용객들의 금융서비스 이용 시에도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식 후원사를 제외한 나머지 은행은 통상 올림픽 개막 전 9일과 폐막 후 3일 등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지정한 ‘마케팅 제한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단, 올림픽 종목별로는 후원이 가능하다. KB금융지주, 신한금융그룹을 비롯한 시중은행들도 선수단을 후원하는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스포츠 마케팅에 나섰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 국가대표 후원·인프라 구축 지원…‘올림픽 마케팅’ 열 올리는 은행들

은행연합회 ‘성공개최 기원’ 200억 기부 KB·신한금융·IBK기업銀은 선수 지원

### 사)대한바이애슬론연맹 후원



IBK기업은행은 평창 동계올림픽 바이애슬론 대표팀에 후원금 1억 원을 전달했다.

민카드 ‘리브메이트(Liiv Mate)’와 연계한 팬클럽 행사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신한금융은 대한스키협회를 통해 동계 스포츠 핵심 종목인 6개 설상종목(알파인 스キー·크로스컨트리·스키점프·스노보드·프리스타일·노르디ック힐) 국가대표팀을 후원한다. 특히 최재우 모굴스키 선수와 김마그너스 선수는 2017년 샷포로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획득해 기대를 높인다.

IBK기업은행은 바이애슬론팀 지원을 위해 (사)대한바이애슬론연맹에 후원금 1억 원을 전달했다. 바이애슬론은 금메달 11개가 걸린 종목이다.

우리은행은 평창 풍력발전단지에 730억 원을 투자. 현지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이다. 또 계열사인 우리카드를 통해 평창 공식 후원사 비자카드와 올림픽 카드를 공동 출시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 부자들이 投資하는 '稅혜택 해외주식형 펀드' 관심을

## PB의 티타임

오 온 수

KB증권  
WM스타자문단 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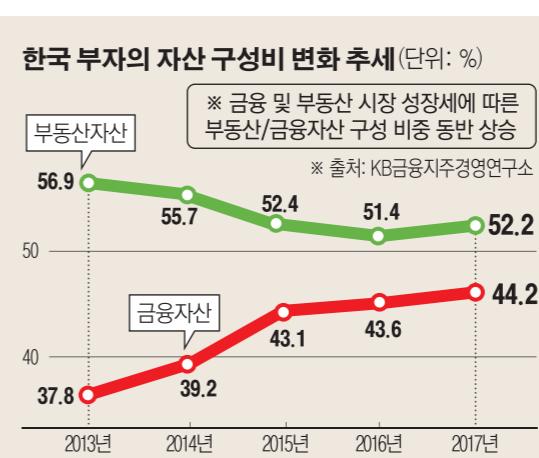
저금리 기조 속 부동산 규제 강화 영향  
10억 이상 자산가 '금융'으로 비중 확대  
비과세 펀드 자본차익·환차익 혜택 등  
투자 기간 없어 필요할 땐 '환매' 강점

국내 자산시장이 빅 이슈에 의해 연일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다. 8·2 부동산대책이 나온 후 부동산 투자자의 샘밥도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자산 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한국의 부자들은 어떻게 자산을 운용하고 있을까? 부자들의 투자 방정식을 들여다본다.

◇균형 잡아가는 한국 부자의 보유 자산 구조 = "우리는 일생일대의 폭락장을 앞두고 있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 확신한다(The Worst Crash in Our Lifetime is Coming.)"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한 짐 로저스가 올해 6월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와 인터뷰한 내용이다. 그의 비관적 전망이 현실화된 것인지 국내 주식시장은 8~9월 조정에 들어갔다. 북한과 미국의 설전이 이어지면서 전쟁 리스크가 부각됐다. 강 대 강의 위협적 발언과 미·중 간 무역 전쟁으로 비화할 조짐까지 보이면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화됐다. 여기에 3분기 실적의 피크アウト 가능성성이 부각하면서 IT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졌다.

자산 시장의 또 다른 측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도 규제의 영향권에 접어들었다. 8·2 부동산대책이 나오면서 그동안 부동산으로 몰린 유동



자금의 눈치 보기도 시작됐다. 시장 예상을 뛰어 넘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연이어 나오면서 투자자의 샘밥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산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한국의 부자들은 어떻게 자산을 운용하고 있을까? KB 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한 '2017 한국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 자산 10억 원 이상의 한국 부자들은 지속적으로 금융 자산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 동안 저금리와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의 영향으로 부동산이 주목받았지만, 금융 자산으로의 자산 구조 변화는 지속하는 양상이다. 아울러 이것은 국내 일반 가계의 평균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69.2%로 특정 자산에 치우친 구조를 보이는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한국의 부자들은 향후 투자 수익에 대한 기대

도 보수적 입장이었다.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과

거에 비해 원하는 투자 수익률을 얻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83.7%에 달했다. 그중 '매우 그렇다'

고 응답한 비율이 48.1%였는데, 이는 전년과 비교

했을 때 11.8%p 증가한 수치다. 저금리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그만큼 향후 투자 수익에 대한 기대치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풍선 효과가 기대되는 세제 혜택 상품 = 정리해 보면 확실한 투자처가 보이지 않고, 저금리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부동산 등 규제 강화는 투자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투자 입장에서 금융 자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그중 올해로 일몰이 예상되는 세제 혜택 상품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는 현시점에서 활성화되는 세제 혜택 상품이다. 일반적으로 해외 상장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할 때는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되는데,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를 활용하면 자본차익과 환차익에 대해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가 다른 세제 상품과 다른 점은 소득금액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투자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언제 환매더라도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다만 1인당 가입 금액에 한도가 있고, 내년부터는 환매만 될 뿐 리밸런싱이 되지 않기에 가입 전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해야 한다.

## 이철환의 돈 이야기

### '투자 제1 원칙' 過慾 버리고 正道 취하라

한 곳만 집중하면 실패 위험성 커져  
포트폴리오·투자 성향부터 파악해야

투자 행위는 재테크 차원을 넘어 자산관리 전략이라는 형식을 취해야 한다. 그러면 자산관리와 투자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해야 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투자상품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적절히 설계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전략이자 전술이다. '포트폴리오(portfolio)'란 위험을 줄이고 투자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종목에 분산투자하는 방법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주식, 사채, 현금, 상품, 부동산 등의 자산에 투자비율을 설정하는 계획을 의미한다. 투자를 할 때 너무 한곳에만 집중하게 되면 실패할 위험성도 그만큼 커진다. 따라서 투자 성공의 비결은 어떻게 더 잘 나누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포트폴리오를 설계함에 있어서는 개인과 시장의 상황도 반드시 고려해야만 한다.

둘째, 부동산과 금융상품에 대한 자산 배분과 투자의 비중을 적절히 설정해야 한다. 이 부동산과 금융상품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자금을 장기로 묻어둘 것인지, 혹은 단기적인 관점에 초점을 두고 자금의 수시입출이 가능케 할 것인지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부동산투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일반적으로 가계자산 중에서

성공률이 높은 포트폴리오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가지고 목표수익률과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정도를 정한 후, 그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도 포트폴리오 설계에 대한 자신이 생기지 않는다면, '100-나이 법칙'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다. 이는 100에서 나이를 뺀 만큼의 비율은 수익성이 높은 상품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위험성이 낮은 상품에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을 뜻한다. 한마디로 젊을수록 수익성 위주의 자산에 편중시키고, 나이가 들수록 공격적인 자산을 줄이는 대신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이다.

셋째, 부동산과 금융상품에 대한 자산 배분과 투자의 비중을 적절히 설정해야 한다. 이 부동산과 금융상품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자금을 장기로 묻어둘 것인지, 혹은 단기적인 관점에 초점을 두고 자금의 수시입출이 가능케 할 것인지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부동산투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일반적으로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반면, 금융자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아 노후 대비가 취약한 상황이다.

셋째, 금융상품 투자의 경우 투자 목적과 기간이 장기투자인지 단기투자인지를 잘 인식하고 판단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 우선, 1년 이내의 단기 자금은 수익률보다는 안정성과 유동성을 고려해 위험에 적은 상품을 택하는 것이 적합하다. MMF, RP, CMA 등을 통해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 투자위험을 고려하여 한곳에 집중투자를 하는 것보다 분산투자가 더 유리하다.

다음으로 중기 목적자금은 내집 마련이나 자녀 학자금 등 비교적 장기간 투자를 목적으로 하므로, 다소 공격적인 수익형 상품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목돈을 일시에 투자하는 거치식 투자인 경우에는 원금손실의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지나치게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투자위험을 제한하면서도 비교적 높은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한편, 장기 목적자금은 노후 대비를 위한 자금으로 소득공제나 비과세 혜택이 있는 정기상품

이 바람직하다. 갑수록 평균수명은 늘어나는데 비해 경제활동이 가능한 기간은 늘어나지 않고 있어 노후를 위한 투자와 자산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런 목적에 부합하는 금융상품은 장기연금저축이나 보험상품 등이라 하겠다. 물론 보다 구체적인 투자전략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넷째, 안정성과 수익성에 대한 균형을 잘 살려야 한다. 이는 결국 투자 성향에 따른 투자전략의 문제이다. 우선 '원금보장 추구형' 투자 성향을 가진 사람은 대개 위험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하고 원금손실을 매우 꺼린다. 때문에 이들은 수익성을 최대로 안전성이 있는 상품에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러려면 은행의 정기예금, 증권회사 환매조건부채권, 국제 일반 회사채처럼 원금손실 우려가 거의 없는 확정금리형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원금보장형과는 정반대의 투자 유형으로 '고수익·고위험 투자형'이 있다. 이런 투자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높은 수익률을 위해 위험을 적극적으로 감수하려는 공격성을 띠다. 그러므로 확정금리형 상품투자는 줄이고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처럼 가격 변동 폭이 커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상품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펀드에 가입할 때는 주식 비중이 높은 고위험 펀드가 적당하며, 나아가 자산의 일정부분은

펀드 가입을 통한 간접투자도 아닌 직접투자도 고려해볼 만하다. 물론 이 경우에도 수익의 대박만을 노리는 무모한 투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이들의 중간 형태를 취하는 '균형 투자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투자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약간의 위험은 감수할 의사가 있지만 원금을 잃을 위험이 있는 투자는 사양한다. 따라서 안정적인 확정금리형 상품과 위험하지만 수익률이 높은 투자형 상품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가입하는 것이 좋다. 펀드에 가입할 때도 적립식 펀드나 주기연동상품과 같이 중간 수준의 위험펀드로 분류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투자전략들도 실제 자산관리 활동에 도움이 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투자원칙은 과욕을 버리고 정도를 취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탐욕적인 투기가 아닌 정상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위험을 줄이고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합리적인 자산관리가 될 것이다. 그 결과 꼭 필요한 시기에 또 꼭 필요한 용도에 거둬들인 수익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국가 경제에도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前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마시고 있는 물은 영원할 수 없기에

그래서 누군가는 반드시 새로운 물을 찾아야 하기에

두산은 지구의 97%인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영원히 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술

지금은 물이 부족한 몇몇 나라를 위한 기술이지만

미래엔 지구와 사람을 지켜줄 생명의 기술입니다

# 두산은 지금 내일을 준비합니다



두산은 시장점유율 세계 1위의  
해수담수화 플랜트 기술로  
1,700만 명이 사용 가능한  
500만 톤의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해수담수화 플랜트 시장점유율 세계 1위  
(2011~2015 Thermal 부분, GWI 발표기준)

# 癌 후유증·합병증 입원 치료 땐 保険金 못받아요

## 이주의 금융꿀팁

직장인 김모(50세) 씨는 건강검진으로 위내시경을 받던 도중 종양이 발견돼 절제술 시행 후 '암(C코드 부여)'으로 진단받았으나, 보험사는 병리보고서 등 의료심사 결과 해당 종양은 상피내암(제자리암 의미)으로 악관상 '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일반암 진단비의 일부(20%)만 지급했다.

금융감독원은 '암보험 가입자가 꼭 알아야 할 필수정보'를 소개했다.

◇가입 90일 지나야 보장…1~2년 내 암진단 시 보험금 50%만 지급 = 보험약관상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만 암진단비가 지급된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의사(주치의)를 통해 암의 진단 여부를 확인하게 되지만, 암보험에서 암진단비가 지급되기 위해서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암의 진단 확정을 받아야 한다.

암보험 약관은 암의 진단 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또는 혈액검사 등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C코드(악성신생물)'라고 기재돼 있더라도 보험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암으로 진단 확정을 받지 못한

종양 제거 수술·방사선·항암 치료 등 직접 치료 목적에만 입원 보험금 지급 계약일 포함 91일 이후부터 보장 개시 1~2년내 암 진단시 보험금 50%만 지급 암 확정 시점은 '조직검사 결과 보고일'

경우에는 암진단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암의 진단시점에 따라 보험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계약일(제1회 보험료 납입일)부터 보장이 개시되지만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시작되므로 만약 암 보장 개시 일 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을 받았다면 해당 계약은 무효(혹은 책임 미개시)가 된다.

이는 보험 가입 전에 이미 암이 발생했거나 암이 의심되는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암 보장 개시일이 지났더라도 통상 보험계약일 이후 1~2년 이내에 암 진단 확정 시에는 암보험 가입 금액의 50%를 암진단비로 지급하고 있다.

일부 암보험의 경우 자기진단이 용이한 유방암은 '암보장 개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진단 확정 시 가입금액의 10%를 암진단비로 지급하기도 하므로 자세한 보장내용은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약

### 잘못 알기 쉬운 암보험 바로 알기

- ① 보험약관상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암진단비가 지급됩니다.
- ② 암의 진단시점에 따라 보험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③ 암의 진단시점은 진단서 발급일이 아닌 '조직검사 결과 보고일'입니다.
- ④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무조건 암입원비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⑤ 암수술·항암치료 등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암입원비가 지급됩니다.
- ⑥ 보험금 지급 여부의 결정을 위해 조사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분히 가능한 상태로 △병원 등에 입실해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해야 할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의 의료관례상 통원 치료함이 타당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보험약관상 입원비의 지급 대상이 되는 입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입원비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암수술·항암치료 등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암입원비가 지급된다.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은 종양을 제거하거나 종양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항종양 약물치료 등에 필요한 입원과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해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입원을 뜻한다.

암이나 암치료 후 그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의 입원의 경우 암입원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입원 치료가 암의 직접 목적으로 인한 입원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보험금 지급 여부의 결정을 위해 조사나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암 입원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입원 필요성 및 암의 직접치료 여부에 대한 입증(보험수의자)과 이에 대한 조사나 확인(보험회사)이 진행될 수 있다. 필요시 보험회사는 동의를 얻어 의료자문을 통해 다른 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확인하기도 한다. 박규준 기자 abc84@

## 금융 이슈 따라잡기

### 기업 재무 안정성도 '富益富 貧益貧'

국내 기업의 재무 안정성이 개선된 것은 저금리 기조에서 기업들이 부채 구조조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개선 추세가 지속 가능한가는 향후 금리상승 등 거시 요인에도 달려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1853개 상장기업의 2014년부터 3년간의 이자보상비율 및 부채자산비율 분포를 분석한 결과, 재무 안정성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개선 효과가 거의 없고, 업종별로 전자전기 제조업 및 정보통신업의 수익성 및 재무구조가 다소 악화했다.

기업부문의 이자보상비율 분포를 보면, 2015년에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으나 2016년에는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2014~2016년 총영업이익이 연평균 19% 증가한 데 비해 총이자 비용은 연평균 2% 감소함에 따라 가중 평균 이자보상비율은 2014년 36.3%에서 2016년 53.3%로 증가했다. 기업별 이자보상비율에 따른 누적 부채비중 분포를 보면 2014년에 비해 2015년 기울기가 완만해져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2015년 평균 이자보상비율은 증가했지만 부실부채비중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2016년에는 분포가 우측으로 이동해 전반적으로 이자보상비율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자보상비율 100% 이하 부실기업들이 부담하는 부채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37%에서 2015년 35%, 2016년 29%로 매년 감소했다.

기업부문의 부채자산비율 분포를 보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4~2016년 총부채가 연평균 6% 증가한 데 비해 총자산은 연평균 8% 증가함에 따라 가중 평균 부채자산비율은 2014년 55%(부채비율 122%)에서 2016년 53%(부채비율 113%)로 감소했다.

기업별 부채자산비율에 따른 누적 부채비중 분포를 보면 2014년에 비해 2016년에는 좌측으로 이동해 부채자산비율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부채자산비율 67% 이상(부채비율 200% 이상) 부실기업들의 부채비중은 2014년 37%에서 2015년 35%, 2016년 29%로 매년 감소했다.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자산 2조 원 이상)의 재

자산 2조 이상 대기업 재무성과 크게 개선된 반면 中企는 미미  
업종별로는 전자전기 제조업·정보통신업 재무구조 다소 惡化

무 성과가 크게 개선된 반면 소기업(자산 2000억 원 이하)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대기업의 이자보상비율과 부채자산비율을 보면 2016년 전반적으로 대폭 개선된 반면 중기업의 경우 소폭 개선에 그친다. 반면 소기업의 이자보상비율 분포를 보면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이자보상비율의 수준도 3년간 거의 변화가 없다. 한편 부채자산비율은 2015년 개선된 이후 2016년에는 변화가 없다.

업종별로는 특히 전자전기 제조업 및 정보통신업의 재무 안정성이 다소 악화했다. 이자보상비율 기준으로는 전자전기 제조업이, 부채자산비율 기준으로는 정보통신업이 다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난다. 전자전기 제조업의 기중 평균 이자보상비율은 2014년 15.2%에서 2016년 23.5%

로 개선됐으나 이자보상비율 100% 이하 부실기업의 부채비중은 같은 기간 오히려 7%에서 28%로 증가했다. 정보통신업의 기중 평균 부채자산비율은 2014년 52%에서 2016년 48%로 개선됐으나 부채자산 비율 67% 이상 부실기업이 차지하는 부채비중은 같은 기간 오히려 10%에서 14%로 증가했다.

국내 기업의 재무 안정성이 개선된 것은 그 동안의 저금리 기조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부채 구조조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개선이 지속 가능한가는 향후 금리상승 등 거시 요인에도 달려 있으므로 금융당국의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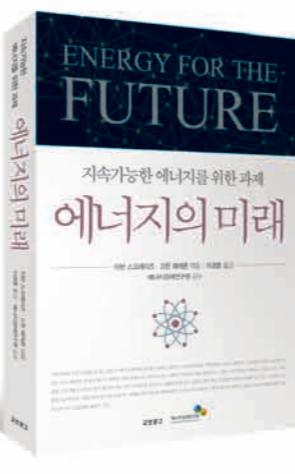
이지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탈 석탄' '탈 원전' 새 정부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 에너지의 미래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위한 과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추천도서



반 스크레이즈·고든 매커트 저지  
에너지경제연구원 감수 | 384쪽  
교보문고 | 값 15,000원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주범, 화석연료에너지 왜 변화 못하나?  
전 세계 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가져올 방법론을 논하다.

횡사와 미세먼지, 탄소배출로 인한 온난화 등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들의 공통된 키워드는 '에너지'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와 자동차 등 에너지산업, 그동안 우리 삶을 편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준 에너지산업이 우리에게 칼날이 되어 들어왔다.  
'에너지의 미래'는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짚고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에 변화를 가져올 방법을 소개하는 책이다

문의: 02-3156-38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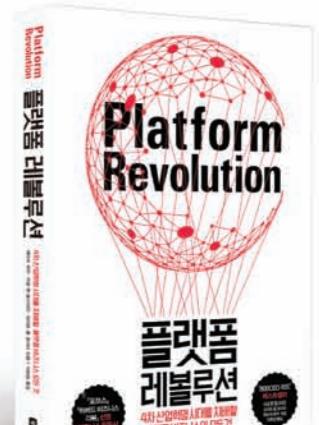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배할 플랫폼 비즈니스의 모든 것

## PLATFORM REVOLUTION

### 플랫폼 혁신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은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활용하는 자가 될 것이다"

『포브스』『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BR)』  
올해의 비즈니스 필독서  
‘800CEO리드’ 베스트셀러



마셜 맥 앤스터인 외 2인 저작  
512쪽 | 부록 | 값 22,000원

정보경제학의 세계적 거장들이 저술한 플랫폼 비즈니스에 관한 최초의 안내서!

플랫폼이 왜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는지, 글로벌 대기업 조차 플랫폼 기업에 밀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존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산업이 플랫폼 기업의 회생 양성이 될 가능성이 높은지 등을 알려준다. 무엇보다 플랫폼을 구축하고 싶거나 제대로 활용하고 싶은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깊은 통찰과 영감을 줄 것이다.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기존 기업을 플랫폼 기업으로 바꾸게끔 영감을 주는 안내서... 집계만 스나페, 전 SAP 최고경영자 원벽하다. 그리고 도발적이다. 밀스트리트 저널, 우리에게 특별히 취미한 플랫폼적 사고를 일깨워 주고 빅데이터의 의미를 다시금 성찰하게 만든다. 정재승, 키아스트 비아오 및 노공학과 교수

문의: 02-3142-0484



알비케이이엠디  
햅틱 제품으로  
車電裝시장 진출

2019년 출시 신차 적용 계획

휴대폰 카메라모듈용 자동조절 구동장치(AF 액추에이터) 기업 알비케이이엠디가 완성차 1차 벤더인 엔터테인먼트 전장(ANV)용 부품의 시제품 테스트를 시작으로 전장부품 기업으로 사업을 확대한다.

8일 알비케이이엠디는 완성차 1차 벤더와 AVN에 적용되는 햅틱 제품의 공급을 위한 시제품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까지 양산 준비를 마치고 2019년 출시되는 신차 모델부터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알비케이이엠디는 “햅틱제품은 향후 주요한 전자부품으로서 역할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 산업 분야에 걸쳐 기존의 소형 진동모터를 대체할 제품으로 기대된다”며 “이러한 시장의 주체에 따라 기술력과 선도적 위치를 통해 높은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알비케이이엠디의 차세대 진동모터인 ‘SRA(Solenoid Resonant Actuator)’가 햅틱 피드백을 제공하는 지능형 통합 컨트롤러에 적용될 예정이다. 2021년까지 자동차 라인업 확대에 따라 연간 30만 대 규모로 성장이 예상된다.

지능형 통합 컨트롤러는 하나의 스위치로 자동차 내 인포테인먼트시스템 등 다양한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자동차 전장 부품이다. 통합 칸트롤러에는 주행 중 조작 시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모니터를 보지 않아도 속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햅틱 피드백이 필요하다.

알비케이이엠디는 올해 13대기 카메라용 액추에이터가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3분기 흑자전환을 이뤘다. 3분기(연결기준) 매출액 12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억3000만 원을 달성하며 흑자전환했다.

알비케이이엠디는 HD햅틱 액추에이터를 개발해 원천특허를 보유한 이머전(Immersion) 사로부터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증을 받았다. HD햅틱 기술을 자동차 디스플레이 및 스위치에 적용시키기 위해 국내 자동차 전장사업부와 협력관계를 맺고 2019년 출시될 자동차 모델에도 햅틱 기술이 채택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람 기자 hura@koreatimes.co.kr

# 삼성과 거래종료後 주가 휘청 유아이디·지디, LGD 손 잡아

LCD 유리식각 제품 등 공급  
“새 계약으로 매출 회복 기대”

삼성디스플레이와의 거래종단으로 주가가 하락했던 유아이디와 지디가 LG디스플레이와의 계약 체결로 매출 회복에 나선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유아이디는 3일 거래처와의 거래 종단 정정 공시를 통해 신규 개발업체 LG디스플레이와 공급계약을 확정했다고 공시했다. 지디도 지난달 31일 삼성디스플레이와의 계약이 종료되고, 같은 달 30일 LG디스플레이와 신규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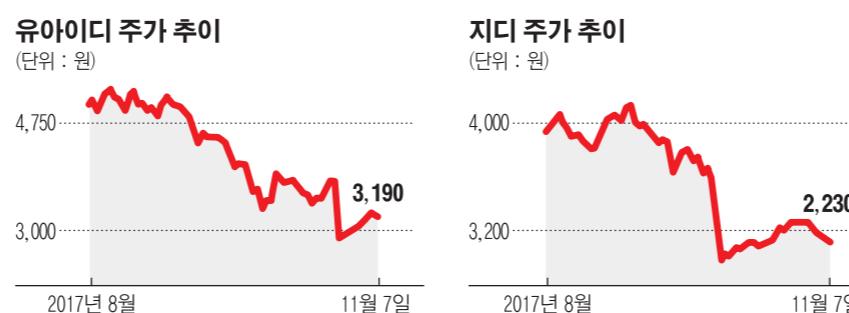
앞서 유아이디는 거래처 LCD 사업비 중 감소로 인한 수주율량 축단으로 삼성디스플레이와의 거래가 축단됐다고 지난달 31일 공시한 바 있다.

지디도 지난달 27일 표면공시를 통해 삼성디스플레이와의 거래계약이 종료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달 26일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설을 이유로 지디 주식거래를 정지 했으나 이달 1일부터 거래를 재개시켰다.

유아이디와 삼성디스플레이의 지난 해 거래 매출액은 123억 원으로 이는 전체 매출액 비중 64%를 차지했다. 지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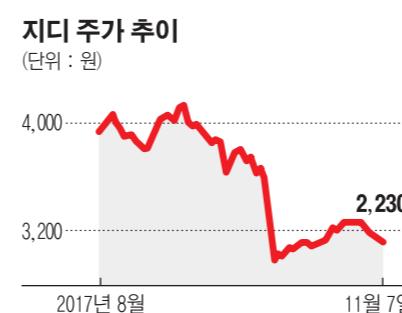
유아이디 주가 추이

(단위: 원)



지디 주가 추이

(단위: 원)



## 코리아나 ‘더마코스메틱’ 中 상륙

현지 ‘카올라’와 협력… 11일 광군제 맞아 게임사와 이벤트도

코리아나가 중국 대형 온라인 유통사 카올라와 컬래버해 더마코스메틱 제품을 이달 론칭하고 시장 확대에 나선다.

8일 코리아나 관계자는 “이달 중국 온라인 카올라와 컬래버해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AMPLE:N 브랜드를 론칭한다”며 “중국 VIP 온라인 전용 브랜드 ‘PREANGE’ 론칭과 함께 중국 내 1000개 대리상을 운영 중인 자인상해를 통해 특별 프로모션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더마코스메틱은 피부과학을 뜻하는 더마톨로지(Dermatology)와 화장품(Cosmetic)의 합성어로, 의약품 수준의 기능성이 접목된 화장품을 말한다. 국

내에선 약국화장품, 피부과화장품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LG생활건강이 태극제약을 인수한 것도 더마코스메틱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다.

더마코스메틱 시장에 화장품 기업들이 진출하는 이유는 시장 규모 때문이다. 융합연구정책센터에 따르면 세계 더마코스메틱 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으로 40조 원에 달한다. 특히 매년 15%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고성장 시장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코리아나는 11일 중국 광군제를 맞아 중국 온라인 카올라에서 온라인 게임회사와 컬래버해 화장품 증정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 중이다. 또 코리아나 운영 브랜드에 대해 할인 프로모션 및 제품 증정 행사를 벌인다. 설경진 기자 skj78@koreatimes.co.kr

코리아나 주가 추이

(단위: 원)



아나는 더마코스메틱 AMPLE:N의 경우 온라인 사이트를 중심으로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

한편 코리아나는 11일 중국 광군제를 맞아 중국 온라인 카올라에서 온라인 게임회사와 컬래버해 화장품 증정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 중이다. 또 코리아나 운영 브랜드에 대해 할인 프로모션 및 제품 증정 행사를 벌인다. 설경진 기자 skj78@koreatimes.co.kr

경영진 잇단 지분 매도에 실적 악화까지…

오이솔루션 株價 16.4% 급락

<최근 15거래일>

공매도 악재 투자자 ‘울상’

오이솔루션 주가 추이

(단위: 원)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이솔루션은 8610원을 기록해 전일 대비 4.76%(430원) 내렸다. 최근 15거래일 동안 하락률은 12일, 그 사이 주가는 16.4% 떨어졌다. 전날에는 8500원을 기록해 52주 신저가도 기록했다.

오이솔루션은 전자, 전기, 정보통신 관련 연구개발 및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2003년 설립됐다. 2014년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2012년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한국형 히든챔피온 육성사업’ 대상기업으로 인정됐고, 같은 해 지식 경제부로부터 100호 첨단기술 기업으로 지정된 우수 중소기업이다.

하지만 최근 주요 경영진의 지분 매도 소식이 주가를 끌어내렸다. 지난달 16일 주인구 대표이사는 본인이 소유한 주식 729주, 17일 4000주, 23일 7000주를 장내 매도한다. 이에 따라 주 대표의 오이솔루션 지분은 4.19%에서 3.95%로 줄어든다. 주 대표는 2003년 8월부터 박용관씨와 함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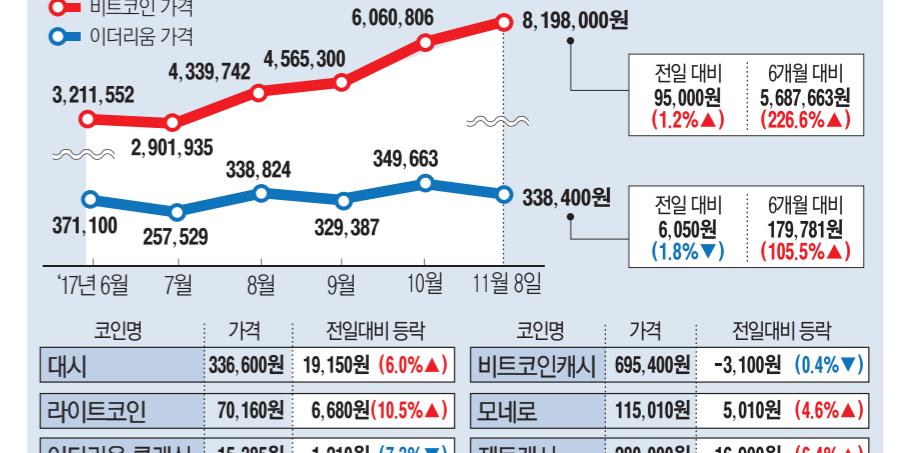
추 대표는 매도를 멈추지 않았다. 지난달 25일 또다시 2만2000주를 팔았으나 이어 26일 1만8206주(1억7500만 원 규모)가 등장했고, 30일에는 1628주(1400만 원 규모)가 나왔다. 이달 2일과 3일에도 각각 4834주(4400만 원 규모), 154주(140만 원 규모)가 거래됐다.

실적 악화도 악재로 작용했다. 전날 오이솔루션은 올해 3분기 연결기준 영업손실이 16억21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가 확대됐다고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6억1800만 원으로 11.9% 감소했고, 당기순손실은 15억7600만 원으로 적자가 지속됐다. 남주현 기자 jooh@koreatimes.co.kr

## bithumb 빗썸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17년 11월 8일, 08:00, KST)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Bravo My Life**  
Monthly Magazine

아직도 소녀처럼 청순한 진미령  
시간도 귀한도 멈춰버린 성'고통도  
'아이스크림 사랑'의  
기수 임병수

처음과 끝이 같은 남자:  
배우 남경수

물을 따스하게  
녹여줄 허귀 한상  
문화 창조는  
비주류가 한다  
오랜미래사회미술관장  
화가 김봉준  
세상과의  
마지막 눈인사

**Hobby Job**  
어쩌다 취미가  
뜻밖의 직업으로  
[1회호 특별선물]  
건배사 모음집

## COVER STORY 취미자산가들의 향연

- PART1. 두 글자로 본 취미 – 낭송, 당구, 서예, 바둑
- PART2. 세 글자로 본 취미 – 퍼커션, 도슨트, 글쓰기, 트레킹
- PART3. 네 글자로 본 취미 – 모델워킹, 민요·장구, 퍼크풀프
- PART4. 다섯 글자로 본 취미 – 캘리그라피, 댄스스포츠
- PART5. 수익과 봉사활동 두 마리 토끼 잡다
- PART6. 취미의 사회적 관계, 행복은 언제 찾아오는가

### 제2작업

깎고, 자르고, 붙이고…  
나무에 생명 불어넣는 직업, 목공에



### 박원식이 만난 귀촌 사람들

삶이 얼마나 남아 있지 않다면? 시현부 판정을 받았다면? 아마도 누구나 현재의 삶과 다른 쪽으로 '나'를 데려갈 것이다. 중년 이후의 귀촌은 머잖아 덕처를 노년, 그 쓸쓸한 종착에 대한 대책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절박한 기색을 머금는다. 노후의 안정과 평안을 성취하려는 의도엔 '거사'라고 할 만한 결연한 포부가 서려 있기 심상이다.

### 즐겁다, 물 만난 고기처럼

삶이 얼마나 남아 있지 않다면? 시현부 판정을 받았다면? 아마도 누구나 현재의 삶과 다른 쪽으로 '나'를 데려갈 것이다. 중년 이후의 귀촌은 머잖아 덕처를 노년, 그 쓸쓸한 종착에 대한 대책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절박한 기색을 머금는다. 노후의 안정과 평안을 성취하려는 의도엔 '거사'라고 할 만한 결연한 포부가 서려 있기 심상이다.

### 서화보가 만난 사랑

문화 청조는  
비주류가 한다  
오랜미래사회미술관장·화가  
김봉준

‘어느 날 인생이 나에게  
까불지 말라고 말했다’

처음과 끝이 같은 남자,  
배우 남경수

과거 속 이이들,  
시간을 넘어 현재로 오다  
‘아이스크림 사랑’의 가수  
임병수

### 몸을 따스하게 녹여줄 허귀 한상

추운 날엔 유독 깊이 모릭모락 나는 국물 요리가 입맛을 자극한다. 중국식 샤브샤브인 허귀는 이런 날씨에 제격이다. 따끈한 국물에 알게 쌈과 고기와 채소를 익혀 한입 먹어보자. 고기가 익듯 몸이 사르르 녹는 기분이다. 허귀 본연의 맛을 볼 수 있는 곳, ‘마리’를 소개한다

SAMSUNG

저염김치처럼 까다로운 김치도  
감자, 바나나처럼 보관이 어려운 식재료도  
제각각 섬세하게 지켜냅니다  
지금까지의 김치냉장고를 뛰어넘어  
김치플러스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 완전히 새로운 경험의 시작 삼성 김치플러스



모델명 : RQ57M9381M1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QR코드로 자세한 제품소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가지 맞춤보관|  
저염김치는 물론  
감자, 바나나처럼  
까다로운 식재료도  
제각각 신선하게



|전문숙성모드|  
오래 먹을 김치는  
저온쿨링숙성으로  
별미김치는 김치별  
맞춤숙성으로 더 맛있게



|전문수납공간|  
2L 생수병은  
빅도어가드에  
부피 큰 식재료는  
와이드냉장실에



|초정온 Full 메탈쿨링|  
4면 메탈쿨링으로  
냉기를 꽉 잡아  
김치맛을  
땅속처럼 변함없이

삼성전자 S' 골드러시  
김치플러스 페스티벌

2017.11.1 - 2017.11.30

[혜택 01. 김장비 최대 30만 원 지원] 11월 중 김치냉장고 구입 시 김장비 혜택 제공

[혜택 02. 구형 제품 토탈보상솔루션] 최대 20만 원 스마트 체인지 보상 or 기존 제품 무상이전 서비스

※ 18년형 스텠드 제품 중 행사 모델 구입에 한함

(단, 배송장소 기준 반경 50km 내 이동 조건)

\* 매장에 따라 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행사 모델 및 사은품 등 상세 내용은 매장 내 판매 상담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 행사는 행사 매장 내 해당 모델 구매 시에 한하며, 당사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보상금 지급방법은 구매처에 따라 상이합니다